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현대불교

제 713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월 7일(음력 12월 12일) 수요일(주간)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100만 어린이 불자 다 어디로?

새싹포교 위기…소처럼 뚝심 있게 미래의 씨앗 심자

"아이를 낳고 절에 가고 싶어도 법회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가지 못했다. 지금은 다섯 살된 아들과 가끔 절에 가면 무섭다며 가기 싫어한다." 두 아이를 키우는 서울 개포동 이은정(38) 불자는 아이와 함께하는 신행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서울 홍은동 박영선(42) 불자는 "어느 날 애가 학교에 다녀오더니 '학교에서 종교조사를 하는데 불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기가 불교를 믿으면 교실에서 왕따를 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새싹포교가 위축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불자 가운데 어린이법회 참석자가 1만 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이불자 및 지도자 육성단체인 동련(이사장 지현) 관계자는 "현재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어린이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어린이는 6000명 가량"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어린이 법회 개설 사찰 200여 곳에 법회 참석인원을 2~30명으로 감안한 수치다. 포교원(원장 혜총) 역시 "250여 사찰의 어린이법회 참석인원을 20~100명으로 추산해 1만 여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통계청의 연령별종교인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5~14세 어린이 불자는 100여 만명이다. 2000만 불자인구의 0.05%에 불과한 100만 어린이 불자 수는 차치하고도, 전체 어린이 불자 가운데 1/100만 어린이법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사 직전의 어린이 포교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포교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일찍이 파악해 2007~2009년을 어린이 · 청소년 포교기간으로 선정했다.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 · 청소년 지도자 양성과정 개설 △'청소년설법자료집', '어린이법회자료집' 발간 · 보급 △붓다 · 마법 삼국유사 등 애니메이션 제작 · 방영 △어린이 포교 종합사이트 '키즈붓다' 오픈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올해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중심 도량'을 선정해 시 · 군 · 구별로 종단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3년째를 맞이한 오늘, 이와 같은 노력에도 종단적 관심과 지원 부족 등 어린이법회 정착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교육 환경변화에 대처 해야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 바쁘다. 학원가기도 바쁜 아이들이 따로 시간을 내 법회에 참석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 법회는 '놀러간다, 쉬러간다'는 인상이 강해 학부모부터 선뜻 마음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2006년 도입된 방과후공부방은 불교계는 7곳에 불과한 반면, 타종교는 수백개(기독교 72%, 불교 1%)에 이른다. 법회가 놀이가 아닌 교육의 연장선이 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해 영어법회 등 어린이를 위한 맞춤법회를 운영 중인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은 "어린이영어법회에서 영어와 동시에 불교를 접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 사고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법회 등 불교행사가 사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가 영문자타카암송대회와 기초불교영어강좌 등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좋은 예다.

불교만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대중적인 법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전문가는 "'농어촌체험 템플스테이'와 같은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어린이법회 뫼비우스의 고리를 이어라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부족도 문제다. 무염 스님(도림사)은 "어린이법회를 진행하려 해도 지도교사를 구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부족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어린이법회 침체의 결과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어린이법회 출신이 다시 지도교사로 활동해 후배아이들을 지도하는 체계에서 온 필연적인 과보"라며 "지도교사 육성을 계속 소홀히 하면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지도교사의 불합리한 처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는 "어린이법회 지도자 80%가 자원봉사자로 불과 10~30만원 보시금을 받는다. 이들의 불심에만 호소해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동련 관계자는 "신도회 · 거사림과 연계한 후원회 및 강사파견, 동문회 조직화 등 외부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싹포교 제도 · 정책 마련 절실

현장활동가 중에는 "개설된 어린이법회 수가 부족한 것은 사찰 주지스님들의 의지와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하는 이들도 있다. 어린이 법회를 하면 시끄럽고, 돈도 안되고, 귀찮다는 생각에 일부 스님들이 어린이법회를 꺼린다는 이유다. 어린이법회는 장기적으로 미래 불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인재불사다. 뒤늦게나마 포교원이 2007년부터 어린이법회 개설지원을 위한 6개팀을 운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2009년은 조계종의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마지막 해다. 도량마다 천진불이 뛰어놀고, 이들이 자라 불교를 외호하는 인재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종책이 지속돼야 함은 물론 첫 번째 종책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미래 불교의 동량이 될 어린 불자를 키우는 일이 천불(千佛) 만불(萬佛) 조성에 버금가는 대작불사인 까닭이다.

노덕현 · 이상언 기자



정진과 봉사로 한해 마무리 2008년 종교편향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시국법회추진위원회(공동대표 수경)가 올 한 해를 참회정진과 봉사활동으로 마무리했다. 추진위원회 소속단체 활동가 20여 명은 구랍 30일 조계사에서 '108배 참회정진'을 한 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봉사와 식기세척봉사를 실시했다. 이어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을 법사로 간단한 송년법회 및 모임을 갖고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박재완 기자

시국법회추진위원회 정진·봉사로 한해 마무리

올 한해 종교편향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시국법회추진위원회(공동대표 수경)가 참회정진과 봉사활동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추진위원회는 구랍 30일 조계사에서 '108배 참회정진'을 한 뒤 조계사 부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봉사와 식기세척봉사를 실시했다.

추진위원회는 봉사활동 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을 법사로 간단한 송년법회 및 모임을 갖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박재완 기자

금주 신문 24면 발행



2009 현대불교



재미와 감동으로 업그레이드

지상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불황과 갈등의 사회,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을 '공경'에서 찾습니다. 현대불교가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의 정신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지상 캠페인을 통해 공경의 가르침을 생활화 하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불교의 세계화는 한국불교가 당면한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촌의 불교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국의 불자들이 알아야 할 움직임을 포착해 드립니다.

이웃종교는 지금….

2008년은 어느 해 보다 종교적 갈등이 심했던 해였습니다. 종교편향의 극복은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불자라고 하여 이웃종교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이 또한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천도교 등 이웃종교의 '지금'을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구도소설-혜암 스님 이야기

큰스님들의 일대기를 소설로 재구성해 '법의 바닷물'을 길어 올리는 정찬주 작가의 야심찬 구도소설 '가야산 정진불'이 713호부터 본격 연재됩니다. 두타행의 모범을 보였던 혜암 스님(조계종 제10대 종정)의 수행역정을 살살이 취재하고 문도와 인연제자들을 인터뷰 한 정찬주 작가의 웅혼한 이야기와 새로운 화풍으로 불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최문정 화백의 그림이 독자 여러분을 새로운 구도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시가 있는 도량

시는 '말씀(言)의 도량(寺)'입니다. 한 편의 불교시를 통해 깊고 그윽한 깨달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화장세계'면에 새롭게 '시가 있는 도량'을 건립했습니다. 매주 불교의 가르침과 정서를 담은 시(선시, 시조, 동시 포함) 한 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

부도(浮屠)는 고승의 유골을 안치한 석조물입니다. 선종의 전래와 함께 조성되기 시작해 '법'의 상징으로 존재해 온 부도는 고승의 무덤이면서 '말 없는 말'로 '길 없는 길'을 설하는 법신이기도 합니다. 고찰의 외진 곳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도밭을 임연태 기자가 시인의 눈과 구도자의 가슴으로 찾아 갑니다.

복지, NGO 지면 확대

새로운 소식과 읽을거리가 강한 현대불교는 복지 분야와 NGO 활동 분야의 소식을 대폭 확대해 보다 신선한 보도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특별기획 불황 · 한파, 마음공부로 '희망'을…
③생활속의 사경수행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회장 ▶ 8면

첫서리 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주소(D)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선인장이 가시를 버린 까닭은?

"미국의 식물학자인 버뱅크(Luther Burbank, 1849~1926)는 늘 화초와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세모(歲暮)를 앞둔 어느날, 우연히 듣게 된 CBS 심야 음악방송에서 DJ는 이런 오프닝 멘트를 날리고 있었다. DJ는 '가시 없는 선인장'을 탄생시킨 버뱅크가 식물에게 '생각과 감정이 전파된다'는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가시 없는 선인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나는 '사랑의 진동'을 창조해 내기 위해 그 식물들에게 이따금씩 말을 걸곤 했다.

'너는 아무 것도 두려워 할 것이 없어. 그러니 방어를 위한 가시도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면 되잖니?'

그랬더니 그 사막의 식물은 점차로 가시가 없는 변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DJ는 이 실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보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는다면 우리 마음에 가시가 뽑히고 독이 빠질 것입니다"라는 깔끔한 선교용 해설을 덧붙이고 있었다.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떠오른 것은 성철 스님의 1988년 부처님오신날 법어였다. 스님은 "마루 밑의 멍멍이, 외양간의 얼룩이, 나는 새, 기는 짐승, 섰는 바위, 흐르는 물, 늙은이 젊은이 모두 함께 입을 열어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합시다"라며, "부처님은 중생이 본래로 성불한 것, 곧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가르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노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불교는 만물의 근원을 꿰뚫는 불성(佛性)사상과 삼계유심(三界唯心),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도리를 전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는듯하다. 반면 이웃종교들은 마음의 원리는 잘 모르지만, '사랑의 실천'이란 이름아래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말씀(법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간에 화제가 된 <시크릿> <긍정의 힘> <비움> <내려놓음>과 같은 불교적인 내용의 베스트셀러들이 이웃종교인들에 의해 출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자들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방하착(放下着)의 도리를 입에 올리는 동안 그들은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마음도리를 응용해 선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반성해 볼 일이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一心) 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깊이 깨달아 일상속에서 자재하게 쓸 수 있는 길을 이웃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시작

명예회복심의위 불교위원 위촉…정부 후속작업 주목



구랍 30일 위촉장을 받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들. 왼쪽부터 이명묵 동국대 의료원장, 허남오 前병무청장, 조남진 호원대 초빙교수, 삼보 스님, 한승수 총리, 원학 스님, 중앙신도회 윤원호 부회장, 세영 스님.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스님들을 강제로 집단연행하고, 병력을 동원해 전국 사찰 5700여 곳을 침탈한 10 · 27법난(法難). 28년이 지난 2008년 초,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하반기쯤 국무총리실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의 밀어붙이기로 위원회 활동은 반년여 동안 지체됐다.

다행히 새해를 이틀 앞두고 위원회 내에서 불교계를 대표해 활동한 민간위원 7명이 위촉돼 1월부터는 본격적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구랍 30일 국무총리실에서 10 · 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11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불교계 위원은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 사회부장 세영 스님, 탄허불교재단 이사 삼보 스님, 동국대의료원 이명묵 원장, 호원대 조남진 초빙교수(예비역 장성불자), 前 전주국제대 허남오 총장(前 병무청장), 사랑의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윤원호 이사장(前 국회의원)이다. 정부측 위원으로는 국방부 차관, 문광부제2차관, 경찰청 차장, 보훈처장 등 차관급 4명이 위촉됐다.

심의위원회는 2008년 3월 제정된 '10 · 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조사 및 대상자 선정, 명예회복 및 보상, 역사관 건립 등 운영과 심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심의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10 · 27법난대책위원장 원학 스님은 위촉식 이후 가진 환담에서 "특별법 제정 이후 위원회 위촉 및 구성이 늦어졌지만 새해 들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사무처 등 실무진을 구성해 1월 초부터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불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공권력 강압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기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화합과 종교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 또한 명예회복에 최선의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 · 27법난명예회복위는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 7~8일경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안 및 사업방향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10 · 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예산은 총 16억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4억 증액됐다.

활동시한이 2년 밖에 안되는 10 · 27법난특별법은 시행령 제정 등 준비과정에서 사안마다 국방부와 의견충돌이 벌어져 불교계 반발을 샀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구성된 첫 특위에 정부가 얼마만큼 적극적인 후속작업에 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우 · 노덕현 기자

청불회 "종단과 정부 튼튼한 가교역할" 다짐



청와대불자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강윤구 청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랍 29일 조계사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청와대불자회(회장 강윤구, 이하 청불회)가 구랍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무자년 송년법회를 열고 불교계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다짐했다.

강윤구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의 취임 축하연을 겸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열반종 총무원장 해곡 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정동활 경호처 인사부장(청불회 부회장) 등 1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교단자정센터, 폭행사건 스님 처벌 촉구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모 사찰 스님들간의 폭력 사건과 관련,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가 승가 위계 확립을 위한 강도높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는 구랍 30일 논평을 통해 "조계종 호법부장을 지낸 모 스님의 막행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일부 스님들의 막행을 정화적 차원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자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청정승가 전통과 위계를 훼손하는 일부 출가자에 의한 사건사고는 종단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승풍 진작과 위계 회복 차원에서 해당스님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계도와 처벌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우 기자

한국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 창립된다

1월중 사단법인 설립…준비위원장에 혜총 스님

10개 불교계 복지법인 대표 스님들은 구랍 23일 롯데호텔에서 1월 중 사단법인 '한국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가칭)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기치 아래 교계 복지법인 간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 정보 공유, 불교복지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인들의 정체성 확립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해 불교복지의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법인 대표들은 동참을 결의한 29개 법인 대표 전원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뜻을 모으고,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에 불국토 대표이자 조계종 포교원장인 혜총 스님을,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과 바라밀복지재단 대표이사 현고 스님을 부위원장으로, 이암 스님을 간사로 추대했다.

준비위는 2009년 1월께 정관과 창립 취지문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창립총회를 열고 연합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상언 기자

리처드기어 한국불교 홍보대사 위촉 추진

87개 템플 사찰 중 27곳만 외국인 숙박 가능



세계적인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사진)를 한국불교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관광공사 오지철 사장은 구랍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불교를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미국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를 초청, 한국불교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 미국지사를 통해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협조를 받아 배우 장동건 씨를 불교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오 사장은 "외국인들에게 템플스테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87개 템플스테이 사찰 중 외국인 참여가 가능한 사찰은 27개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협조를 통해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우 기자

社 告

'법보시'로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 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 법보시 후원 안내 ■ 문의 대표 (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기 2553년(2009년) 己丑年

동학사 승가대학 신입생 ·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 사미니과 00명 - 사집과 0명

■ 시험과목
면접, 염불실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 입학자격
사미니계 수지자, 타 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5) 증명사진 ····· 2매
6) 건강진단서

■ 준 비 물
만의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 원서접수 및 마감
2008년 12월 15일(음, 11월 18일) -
2009년 1월 14일(음,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2009년 1월 15일 (음, 12월 20일)
단, 2009년 1월 14일 오후4시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문 의 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화 042)825-2570
팩스 042)825-6068

대한불교조계종 동학사 주지 견성 |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해주

불기 2553년(2009년) 己丑年

동학사 화엄학림 전문과정 제1기 학인 모집

■ 모집요강
◇전문과정 응시자격 : 기본 교육기관 졸업자(타 강원 포함),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니.
◇특 전 : 전문과정 2년 졸업자는 종단 학림령에 의거해 불교학 관련 석사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자격이 부여됨.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졸업 후 증강(부교수) 자격 부여.
◇모집인원 : 10인 이하 - 전문과정 2년
◇교 과 목 : 〈대방광불화엄경〉(80권 · 60권), 범본 〈십지경〉, 〈사분율〉, 〈십지경론〉, 〈청량소초〉, 〈통현론〉, 〈일승법계도〉, 화엄사상사, 선사상사, 불교교리사, 기타 제교학, 영어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학림 소정양식) ·····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5) 승가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6) 건강진단서
7) 수행 이력서
8) 학업 계획서
9) 사진 5장 (3×4)

■ 원서교부
동학사 종무소 및 동학사 홈페이지

■ 원서접수 및 마감
2008년 12월 15일 (음, 11월 18일) - 2009년 1월 14일 (음,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전형일시 : 2009년 2월 16일 (음, 1월 22일) 오후 1시

■ 입 학 일 : 2009년 2월 20일 (음, 1월 26일)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세면도구

■ 문 의 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화 042)825-2570 / 팩스 042)825-6068
기타 자세한 것은 동학사 홈페이지 (http://www.donhaksa.or.kr) 화엄학림 청규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동학사 주지 견성 | 동학사 승가대학 및 화엄학림 학장 해주

‘최고의 사립초교’ 관록에 날개 달다

조계종립 은석초교 서울시 우수학교 3개 부문 표창…새싹포교 신기원



불교계 유일의 초등교육기관 은석초등학교(교장 김한기)가 구랍 31일 서울시 우수학교 표창을 세 개나 받아 화제다. 이번 표창 분야는 △교육과정 △영어교육 △체육교육 3개 분야다. 전국 600여 초교 중 20여 학교가 수상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3개 분야 표창은 놀랄만한 성과이다.

2006년 신입생 모집 미달, 102명 전학 등 부진에서 벗어나 1.5:1의 신입생 경쟁률과 80여명의 신입대기자, 국제中 7명 2차 합격 후 추첨 3명 합격, 2007년 서울시 영재교육원 합격률 2위 등은 명문 사립을 자리매김한 은석초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은석초교의 발전에는 2007년 부임한 김한기 교장(58 · 사진)의 역할이 컸다. 김 교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 · 기독교 · 천주교 등 종교별 초등교육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제13기 조계종 포교사로 포교백서 초등부문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불교초등교육의 권위자다. 파라미타 중앙위원, 불교스카웃 임원 등도 맡고 있는 그는 학교내 서울답사부에서 무려 15년 동안 주말이면 3~6학년들을 이끌고 교과서에 나온 지역을 답사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김 교장은 은석초교에 비전을 제시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교를 조금씩 바꿔갔다. 우선 교육과정 1년 설계 자료집(서울시 교육감 표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개선책을 실시했다. 교원들도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제에 열의를 보이며 적극 나섰다.

은석초교는 여러 분야에서 변화했다. 첫째는 공교육 책임제다. 영 · 수 수업을 늘리고,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집중수업을 실시했다. 방과후 학교 시간을 연장하는 등 기존 교외수업도 강화했다. 거기에 더불어 맞벌이부부를 위한 에듀케어(EduCare)를 신설했다. 에듀케어는 학교수업 후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도서관 공부와 과제물 복습 등으로 학생을 관리하는 제도다. 학력부진아를 위한 무료 국영수교육과 우수학생을 위한 영어 국제中진학반과 수학영재반 등도 운영했다. 동대부중 선생님을 초청해 선행학습도 실시했다.

둘째는 학생 · 학부모 우선교육이다. 과학경진대회, 예술제 등 각종교내행사 시간을 오후 6시 이후와 공휴일로 옮겼다.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와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각 가정 출근 시간에 맞춰 도서관 개장 시간도 7시로 맞추고 교원 출근시간도 앞당겼다. 교원평가제와 학부모만족도평가도 실시했다.

셋째는 영어교육 특성화 및 밸런스 교육(BDI)이다. 리스닝 및 스피킹 강화를 위해 어학실을 8개로 늘리고,



은석초교의 영어교육 현장. 영어교육특성화 및 밸런스교육(BDI)은 학생 ·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

원어민 교사를 대폭 증가시켰다. 현재 은석초교에는 21개 학급에 21명(외국인 7명)의 원어민교사가 있다. 펠트반, 이머전반, 국제중반, 영어독서토론반 등 다양한 수준별, 특성화 교육도 실시했다. 교과서도 외국 교과서를 그대로 쓰는 타학교들과 달리 직접 교재를 편찬해 한국학생에 맞게 적용했다.

리딩 강화를 위해 미국 르네상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사서가 있는 영어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영어도서관은 방과수업 후 도서관에서 외국인 사서가 레벨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미국레벨을 평가해주고 그에 맞는 영문책을 대여해주는 제도다. 학생들은 1주일동안 영문책을 독서하고 외국인사서와 인터뷰 및 지필평가를 하게 된다. 3학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영어일기쓰기도 실시했다.

이러한 개선책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 산하 12개 학교를 거느린 동국대는 은석초교에 2007년 1억원 2008년 2억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은석초교는 교실당 2000만원을 들여 1 · 2학년 교실을 가정환경과 비슷하게 리모델링하고 현재 3~6학년 교실도 개선중이다. 동국대에서도 수시로 방문해 문제점을 직접 들었다. 은석초교 측은 동대부중 초청 선행학습, 동대 경주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여름 영어캠프 등에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종립학교 교류에 동국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세종, 광운 등 타 대학 부설 초교입장에서는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적극적인 방침에 2008년 6억, 2009년 7억 지원 등 지원 폭을 늘려갔고 2008년 12월 26일에는 한나라당 박진 국회의원(외교통상 상임위원장)과 두산 박용만 회장을 위시한 은석초교 동창회도 결성돼 본격적인 후원도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계종립 은석초교의 발전은 인재불사가 시급한 불교계에 하나의 대안모델이 되고 있다. 불자어린이회인 연화어린이회(지도스님 법정) 및 불교어머니회가 있는 은석초교는 주3회 다도 교육으로 도덕을 가르치고, 방과후 주2회 법회를 여는 등 불심공사도 한창이다. 매월 첫 토요일 학부모 교리강좌와 연2회 학생 · 학부모 · 교원 합동사찰순례도 실시하고 반야심경 · 찬불가암송대회, 부처님 그리기대회 등 각종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불교동량 육성뿐만 아니라 30%가 무종교인인 은석초교에서 불교에 대해 모르던 이들도 관심과 친근함을 느끼게 됨은 당연하다.

김한기 교장은 “답사부 등에서 은석초교를 나온 제자가 다시 후배를 지도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선업으로 씨앗을 심는 불교정신으로 불교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은석초교 발전의 끝없는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4대강 살리기, 매장문화재 보호에 최선”

문화재청,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정부가 대운하 건설을 위한 단계별 수순으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구랍 29일 경북 안동과 전북 나주에서 전격적으로 착공했다. 자연환경 파손은 물론 하천 인근 문화재 훼손이 뻔하다는 판단 아래,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시 문화재 보존 · 활용의 균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구랍 27일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매장 문화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사업추진 지연 지연을 극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문화재분포상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업추진단 발족에 맞춰 문화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자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지방자치단체와 발굴기관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풍화에 스러진 불두 되살려

경주 남산 삼릉계석불좌상(보물 제666호) 정비



통일신라시대 조성당시의 원형을 살려 복원된 경주 남산 삼릉계석 불화상의 일제강점기 복원전(왼쪽)과 복원 후 모습.

불국토를 꿈꾸던 신라인들의 염원이 깃든 경주 남산지구에는 석불과 석탑, 마애불이 계곡과 능선마다 조화를 이루며 자리해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지내며 풍화되거나 무너져 훼손된 석조문화재는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주 남산 삼릉계석불좌상(보물 제666호, 이후 석불좌상)’도 그 중 하나. 석불좌상은 8~9세기경 만들어진 작품이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과 근년에 정확한 고증작업 없이 엉성한 모습으로 복원됐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석불좌상 정비를 마치고 구랍 29일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2007년 3월 정비 시작 때까지만 해도 석불좌상 안면은 콘크리트 몰타르로 적당히 보수처리된 상태였다. 광배는 불상 뒤편으로 넘어져 크게 파손됐었다. 연구소는 석불좌상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불상의 원위치 지점을 추정하고, 과학적 보존처리 등을 거쳐 정비를 마쳤다.

석불좌상 불두는 비슷한 시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산 미륵곡 석불좌상(보물 제136호) 등 비교적 안면이 온전하게 보존된 석불을 참조해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상호로 재현하고자 했다. 10여 개로 조각났던 광배도 접합해 원형을 살렸다. 결실된 상부는 신석(新石)으로 조형해 통일신라시대 원래 광배의 윤곽에 가깝도록 보수했다.

지병목 소장은 “이번 석불좌상 보수정비를 통해 신라인의 신앙지였던 경주 남산의 정체성을 구명하고 참모습을 재현해 국민들에게 민족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JTS, 北 회령시 영유아 · 산모 돕기 나서

신년 맞아 8800여 생명에게 희망을

국제구호단체인 JTS(이사장 법륜)는 구랍 30일 부산항에서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영유아 및 산모를 위한 영양식 3억 8000여 만원 어치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번에 지원된 물품은 산모용 미역죽 분말 25t, 밀가루 50t, 전지분유 28t, 설탕 20t, 소금 1t으로 1월 1일 회령시 산모 2500여명과 영유아 6300여명에게 제공됐다.

선적식에는 JTS소속 회원 20여명이 참가해 배고픔에 허덕이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희숙 JTS 영남사무국장은 “새해를 맞이해 북한에 있는 영유아와 임신부를 위해 영양식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 먹거리들이 임신부와 어린 새싹에게 생명의 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JTS는 지난 구랍 18일 함경북도 도인민병원에 자동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흡입기, 수술대 등 1억 500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 19종을 지원했으며,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밀가루 1200t, 국수 500t을 공급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구랍 30일 JTS는 부산항에서 함경북도 회령시 영유아 및 산모를 위한 영양식 선적식을 개최했다.



‘자비의 쌀’ 등 3000만원 전달

양산 통도사 불우이웃 300여 세대 후원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화엄산림대법회 회향을 맞아 지역 불우이웃 300여 세대에 3000만 원을 후원했다.

통도사는 구랍 26일 양산시 시장실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하고, 양산 지역 내 경로당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쌀과 후원금 등을 전달했다. 경로당 240 곳에는 쌀 240가마와 멸치 240포를 전달하고, 소년소녀가장 72세대에는 2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총 3000 만원을 전달했다.

정우 스님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작은 정성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해져, 조금이나마 따뜻한 웃음을 지을 수 있길 기원하며 통도사 사부대중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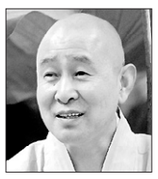
한편 53일의 구법여행 화엄산림대법회는 같은 날 통도사 설법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8년 11월 4일 입재 이후 구랍 26일 회향법회까지 53명 대덕 큰스님으로부터 하루 평균 3000여 명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사회에서 깨달음을 위한 수행정진에 관한 법문을 들었다. (055) 382-7007

박지원 기자

“출·재가 합심해 한국불교 중심으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신도회 · 부산불교실업인회

부산지역 불교단체들이 2009년을 맞아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밝히며 힘차게 첫 출발을 했다. 출가와 재가가 합심해 부산불교 중흥의 원년을 열고, 사회 전분야에서 불법을 구현해 부산불교를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 사진)는 2009년을 ‘부산불교 중흥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대표 승가단체인 부산불교연합회는 1월 5일 창립한 재가단체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 · 사진)와 손잡고, 부산불교가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연중행사였던 부산시민연등축제와 팔관회를 부산세계등축제 및 세계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로 각각 발전시켜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불교문화축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지난 해 종교편향과 훼불로 얼룩졌던 교권의 수호도 강조됐다.





연합회는 “부산불교교권수호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합심해 부산을 넘어 한국불교의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창립 42주년을 맞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 사진)는 “8대 주요 사업을 선정해 포교 신행 교육 복지 봉사 국제 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부처님 정법을 구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신도회의 신년 계획은 그동안 교계의 관심이 소홀했던 환경 및 국제 교류 분야 등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폭넓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복지 · 환경 분야에서는 생명환경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찰생태탐험대를 창단해 생태관련 단체와 꾸준한 연대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자비의 쌀 나눔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인증센터를 마련하고, 위기가정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기존 교계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충된다. 특히 국제교류 분야로도 발을 넓혀 동남아시아 학교 및 의료센터 건립 지원, 대학생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등 해외지원사업도 기대해볼만 하다.

부산지역 불자실업인 모임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 · 사진)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침체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극복해 더욱 의연하게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또 매월 개최했던 전국순회법회를 활성화해 명산대찰과 고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통해 존경받는 불자 사업가의 소양을 기르고, 기업인을 위한 기본교리 과정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신행활동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부산불교방송 개국, 장학사업, 독거노인 지원 등을 통해 전법활동을 꾸준히 펼쳐 지역 사회의 존경을 받아온 부산불교실업인회는 앞으로 부산불교실업인회의 100년 대계와 부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당당하게 앞장설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환우 위한 위문 음악법회 열려

죽림정사 등 준비해

세모의 마지막 토요일, 부산 동의의료원에서 법향 가득한 음성공양의 마당이 펼쳐졌다.

부산 죽림정사(주지 각원)와 부산경남포교사단은 구랍 27일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에서 환우들을 위한 위문 음악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 참석한 환우 200여 명은 자비실천합창단, 사물놀이, 동래학춤, 경기민요 메들리, 벨리댄스, 트로트 메들리, 각원 스님 법문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 11년째 행사가 된 위문법회에는 그동안 반송 원오사(주지 정관), 수덕사(주지 법민) 등 여러 사찰의 스님들이 초청법사로 함께 했다. 또 광양병원 및 순천군법당에서 위문법회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원 스님은 법문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많이 힘들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고 고통을 극복하라”고 격려했다.



구랍 27일 부산 동의의료원에서 열린 위문 음악법회.

박지원 기자

광주사암련 회장 성오 스님



“광주불교는 빛의 도시가 아닌 지혜의 고을입니다. 지혜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랍 23일 광주시민회관에서는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1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행사에서 성오 스님(사진)은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은 “호남은 구산선문의 전통을 가진 한국불교의 종가로 전국에서 불교적 밑거름이 가장 좋다”며 “호남지역 불교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성오 스님은 호남불교 중흥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으로 △종단을 초월한 승가의 화합 △정기적 신행단체와의 간담회 △신행단체 회원들의 체계적 불교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해 돌아보고 새해 맞이하고

조계종 대전 전법도량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은 구랍 26일 백제불교회관 대법당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충남도청불자회, 대전충남지방경찰청불자회, 운불련 등 40여개 신행단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한해를 뒤돌아보며 새해의 새로운 다짐을 했다.

장곡 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卽心是佛)라는 가르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움츠리지 말자”며 “기업인 등은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생업과 깨달음을 한 생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옥 회장(백제불교회관 신행단체협의회)은 “지역의 불교를 주도하는 백제불교인이 되자”며 기도 정진하는 불자가 되기를 당부했다.

사재동 학장(백제불교문화대학)은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하고 돈 세상이 아닌 인정이 넘치는 불자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전북불교 중흥 주역 되자”

김제 불교인 송년의 밤 열려

전북 김제지역 불자들이 구랍 29일 김제시청 강당에서 무자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김제 불교인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구랍 29일 김제시청 강당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전북 불교 중흥을 다짐한 전북 김제지역 불자들.

행사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제17교구 김제지역 말사스님, 김제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이건식 김제시장, 경은천 김제시의회의장, 권두삼 김제불교회 관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추진위원장 송헌 스님(김제 조양사)은 대회사를 통해 “김제 불교인의 앞날에 더욱 힘차고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이 지역 불자님들의 힘을 모으면 전북 불교 중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허물은 남김없이 바로 참회함과 더불어 전법과 포교 대중화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지역 불자가수들의 공연과 김제 보리수 합창단의 축가와 경품추첨 만찬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애인가정돕기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선교종, 총 60가구 30만원

대한불교선교종(종정 혜종)은 구랍 29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제7회 부경,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정 돕기 지원금 전달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혜종 스님(선교종 종정)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발원문 낭독, 대회사, 수령자 공명, 지원금 전달식,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후원 대상 장애인가정은 부산시 55가구, 경남 밀양시 5가구로 총 60가구에 각 30만원씩 180만원 후원금이 전달됐다. 지원금 전액은 외부 후원 없이 선교종 스님들이 직접 마련했다.

혜종 스님은 법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간 등에서는 하루 수십여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며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자비와 배려의 마음을 갖자”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선교종은 구랍 29일 장애인가정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대한불교선교종은 2001년부터 환경미화원 포상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장학금 전달, 우수 경찰관 포상 등 사회복지 실현과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매년 이웃돕기 행사를 열어 왔다. (051)462-6181

박지원 기자

전통등 강좌

매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를 앞두고 서울경기지역에서만 개설되던 전통등 만들기 강좌가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인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1월 14~16일 청림청년회 주관으로 ‘전통등 만들기 강습회’를 개최한다. 강습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첫날 구조물 만들기를 시작으로 둘째 날 배접, 셋째 날 차색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대나무 살을 휘어 골조를 만들고 한지로 면을 붙여 완성하기까지 전과정을 배울 수 있다. 8~10명으로 이뤄진 1개조가 작품 1점을 완성하게 되며 참가비(강사비 및 재료비 일체)는 각 조당 150만원이다. 2009년 봉축 연등축제를 일찌감치 준비하는 사찰들의 호응이 높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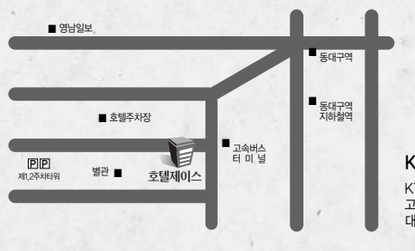
봉 초대 종정 취임과 국가와 민족의 화합 기원대법회 축

초대의 글

석정관 대종사께서 생활불교의 등불을 드높이 드시고 온 우주와 천지의 중생속에
법의 빛이 되어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불법의 소임을 알리는 장을 열었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봉행위원장 : 도 선
집행위원장 : 보 광
부 위 원 장 : 청 강 태 룡 명 허 홍 재 선 학
아 도 원 행 원 응 석 문 의 공
체 법 법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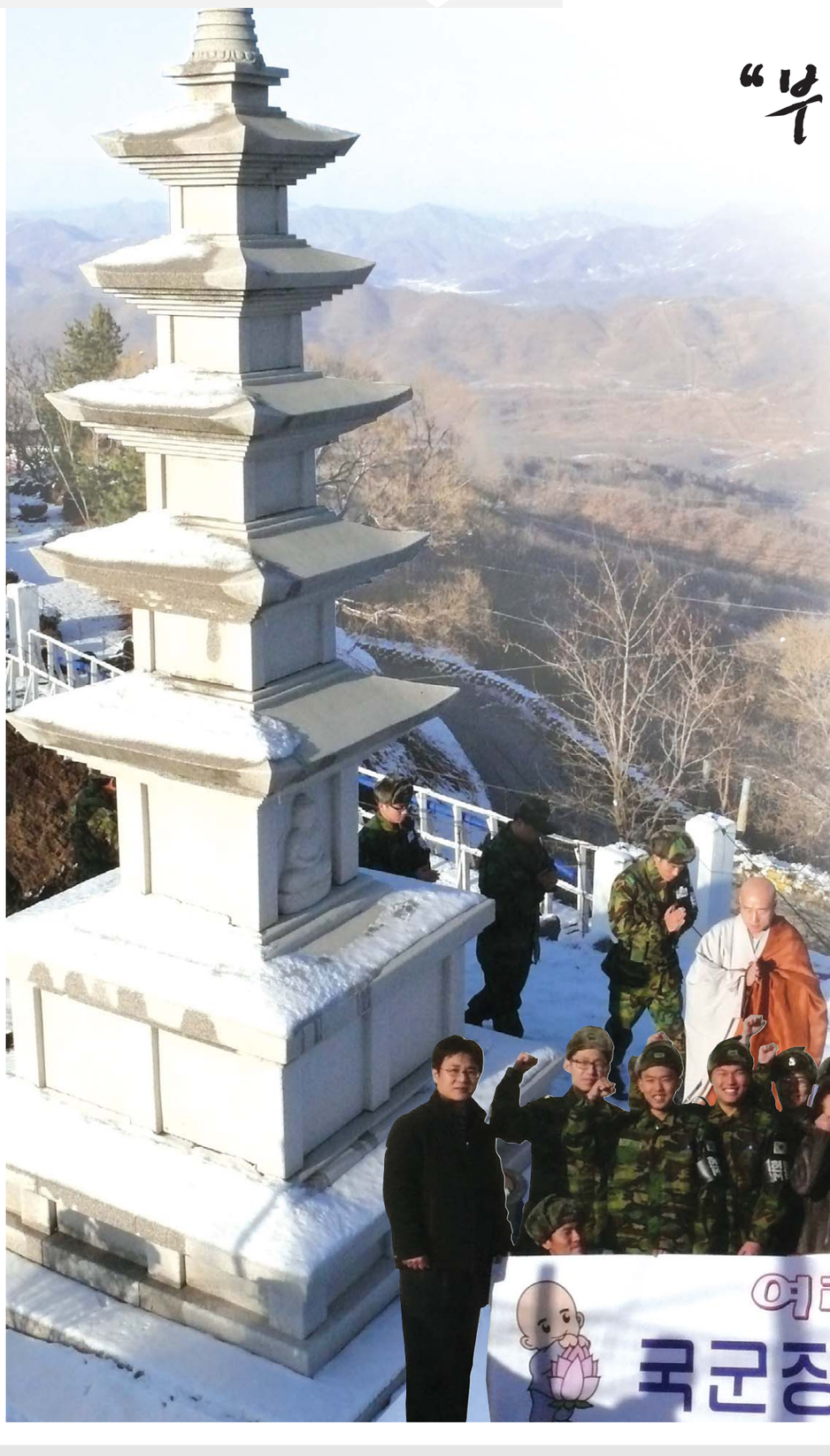
◆ 일 시 : 2009년 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기 2552년(음) 12월 20일)
◆ 장 소 : 동대구 제이스호텔(3층 그랜드볼룸홀)
대구 동구 신천 4동 326-1 053)756-6601~10
◆ 연락처 : 011-601-6378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합장

군종특별교구 연말 맞이 GOP 위문

"부처님께 신고합니다. 최전방 이상 無!"



군포교회원회등 제주도서 온 위문행사
일면 스님 직접 합장주 달아주며 축원

"단결, 중부전선 이상 무"

새하얗게 몰아치는 북서풍에도 들려오는 목소리는 우렁차다. 지금은 겨울 철새들만이 찾지만, 반세기 전 평야를 붉은 피로 물들였던 그 곳.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최전방 철책선에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졌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가 연말을 맞아 구랍 23일 중서부전선 최전방 5사단 상승열쇠부대를 찾았다. 최전방의 추운날씨와 하얗게 내린 눈도 열쇠부대 장병들의 열정과 그들을 위로하는 따듯한 불심까지 얼릴 순 없었다.

이날 위문행사에는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과 군종교구 심정민 종책실장 등 군종교구 관계자 뿐만 아니라 82년부터 군포교를 지원하고 있는 군불교후원회 송순옥 회장을 비롯한 후원회원들과 제주 무량정사 묘관 스님(80) 등 멀리 제주도에서 온 불자들이 동참해 떡과 귤 등 먹거리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직접 재배한 무농약 귤 215박스를 가져온 묘관 스님은 3년 전부터 매년 귤 1000여 박스를 육 · 해 · 공군과 해병대 등에 보내왔다.

달리는 차량을 재촉해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시각은 정오 무렵이었다. 바쁜 행보에도 권혁순 사단장이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위문단을 맞이하며 예우를 갖췄다. 일정상 권 사단장을 대신해 불자로 알려진 문효진 행정부사단장이 귤 등 위문품을 전달받았다.

환영행사 후 군법당인 통일광복사(주지 김재윤 법사)에서 광복사 신도들을 격려하고, GOP지역으로 이동했다.

일면 스님은 GOP로 향하기 전 군종교구 사상 처음으로 원불교 열쇠교당을 방문해 참배하고 준비한 책을 선물했다. 원불교는 2007년 첫 군종장교를 파견했고 그 곳이 5사단 열쇠교당이다. 문정석 교무(대위)가 위문단을 맞이했고, 소식을 들은 타종교 군종장교도 자리를 함께했다.

환영행사로 일정이 다소 지체된 위문단은 길을 재촉했다. 위문차량이 1시간 가량 길을 달렸을까. 눈이 대부분 녹은 경기지역과 다르게 폭설로 뒤덮인 산봉우리들이 나타났다. 길 양옆으로는 지뢰라는 표식과 '5사단땅굴은 5사단이 찾는다'는 표지가 눈에 들어왔다. 삼엄한 검문소를 몇차례 통과 후 깍아지를 듯한 산 정상에 위치한 36연대 통일9초소와 기나긴 철책선이 위문단을 맞이했다. 매서운 바람에도 대대지휘관과 소초장병이 일렬로 도열해 환호를 보냈다.

"건강히 무사제대하십시오. 당신들 덕분에 부모님과 가족들이 평안히 있습니다."

군복무를 했던 일면 스님은 이들의 손에 손수 합장주를 달아주며 원할한 군생활과 국토안녕을 기원했다.

위문브리핑이 진행된 통일9소초는 5사단에 시범 도입중인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감시카메라와 접근센서로 소초지휘부가 철책상황을 24시간 점검하고, 유인과 무인경계근무를 병행한다. 위문단이 브리핑을 받는 순간에도 수시로 비상벨이 울리며 철책선 이상움직임을 감지했다.

이어 진행된 생활실(내무반) 방문에 묘관 스님과 송순옥 회장 등 노보살들도 "추운데 고생한다"며 장병들을 보듬어 안는다.

송순옥 회장은 "군장병 볼 때마다 손자같다. 우리 손자도 군대가야하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힌다.

"재게재게 옵서, 호꼼만 이십서게(빨리빨리 와라, 조금만 있어봐)." 묘관 스님은 잘 들리지 않는 귀에도 더 많은 장병에게 손수 위문품을 주기위해 신도들을 재촉한다. 주변에선 스님께 제주도행 비행기가 늦는다고 난리다.

장병들을 격려한 위문단은 최전방법당 '통일각'을 들러 일배 또 일배했다. 통일각 불탑 뒤로는 드넓은 이북평야와 기나긴 철책선이 펼쳐져 있었다. 통일각 탑돌이에 조국통일과 평화정착의 염원은 영글어 갔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和諍平和中央敎院 現代佛敎曹溪宗

宗指 見成成佛 傳法敎化 和諍平和
宗正敎示 定慧行願 和合和諍 衆善奉行

宗正 碧雲 海光
副宗正 性柱 廻天

元老議長 慧正 石成 | 總務院長 東華 漆桶 | 宗會議長 法性 靑松 | 糾正院長 慧圓
敎育院長 眞觀 | 布敎院長 眞達 | 比丘尼院長 正哲

총무부장 성문 | 재무부장 법진 | 교무부장 성해 | 사회부장 도선
문화부장 원욱 | 포교부장 고암 | 홍보부장 천봉 | 복지부장 수공
기획실장 성일 | 사무처장 진공 | 포교사단장 광덕 | 사회복지단장 수연
종단신도회장 송용찬 | 종단여신도회장 송정숙 | 보광사 화엄회 회장 최병년 외 신도회

보광사 만해불교대학. 만해학교
충남대학교병원법당 무진등 자원봉사단

총무원 : 대전광역시 식장산 보광사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93-1 전화 042)283-5896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 현붕해 총무원장 김화엄

재단이사장 경원
명예이사장 붕해 | 원로의장 금봉 | 종회의장 경원 | 호계원장 용암 | 총무원부원장 법성 | 서울교구 직할
상임이사 혜광 | 원로부의장 명종 | 사무처장 삼주 | 포교원장 도안 | 총무부장 용운 | 부산교구 삼주
이사 혜운 | 원로위원 무찰 | 종회의원 덕봉 | 감사원장 석성 | 교무부장 지언 | 대전교구 용주
이사 도기 | 수암 | 재성 정일 | | 재무부장 석담 | 대구교구 석담
이사 화엄 | 청송 | 자명 무상 | | 사회부장 혜성 | 울산교구 지운
이사 일명 | 송은 | 도정 만성 | | 규정부장 진송 | 인천교구 용운
이사 법광 | 원각 | 선행 자견 | | 홍보부장 고봉 | 강원동북 보해
이사 담화 | 혜운 | 지연 지허 |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 교육부장 법해 | 강원서북 동청
감사 혜천 | 원경 | 도허 경담 | | 포교부장 보월 | 경기남부 광은
감사 혜원 | | 승원 법안 | | 총무국장 영우 | 경기북부 도혜
| | 법경 일운 | | 교육국장 진율 | 경남교구 보광
| | 진허 혜원 | | 홍보국장 자혜 | 경북교구 해동
| | | | | 전남교구 혜성
| | | | | 전북교구 석성
| | | | | 충남교구 청표
| | | | | 제주 경운

■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40-27 엄지빌딩 4층 www.ilbung.org TEL 02)998-8161,2 FAX 02)998-8384

불교문화재 12건 보물 지정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12건의 불교문화재가 무더기로 보물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구랍 23일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불교문화재 9건과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제1~10' 등 전적 2건,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및 금고거'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했다.

지정예고 된 불교문화재 중 조각은 1657년 조성된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같은 시기의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불좌상'이 있다. 전문가들은 "두 작품 모두 17세기 조선 불교조각을 대표할만한 대작"이라며 불교조각사 및 조각유파 연구에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했다.

불화로는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괘불화인 '성주 선석사 영산회 괘불탱'을 비롯해 '포항 보경사 괘불탱' '대구동화사 아미타회상도'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삼불회도'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청도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 등 6점이 지정예고 됐다.

전적으로는 '<묘법연화경> 권제4~7' 등 12~15세기에 제작된 주요 전적 7종을 포함한 '대구 동화사 목조약사여래좌상 복장 전적'과 당의 반라밀제(般剌密帝)가 번역하고 송나라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한 것을 15세기 전반에 간행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권제1~10' '용비어천가 권제3~4' 등 2건이 있다.

이와 함께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및 금고거'도 함께 지정예고 됐다. 오춘영 학예연구관(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은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및 금고거는 현재로는 보기 드문 17세기 금고(金鼓)로서 규모도 크고 보존상태 또한 양호해 17세기 전반 금고의 면모를 알려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구랍 23일 문화재청이 보물 지정예고한 문화재들.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영천 은해사 순치3년명 금고 및 금고거' '포항 보경사 괘불탱' <수능엄경>.

한편 이날 지정예고된 문화재 가운데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9건 불교문화재는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가 2002년 시작한 전국 사찰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사업 중 2006년 대구·경상북도 남부 지방 대상조사 결과 신발견·재평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고려불화 독보적 존재"

봉은사 특강서 유홍준 교수 '예찬론' 펼쳐

숭례문 화재로 문화재계는 2008년 대변혁을 맞았었다. 사찰 전각 등 목조건축물을 비롯해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선왕실의궤' 등 해외유출문화재에 대한 환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은 한해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에서 구랍 25일 고려불화를 주제로 강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강사는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명지대 교수)으로 '아! 아름다워라. 고려불화여!'를 주제로 강연했다.

"고려불화는 독보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고려불화전'이 열리는 곳이 있다면 꼭 찾아가 보세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유 前 청장은 "석굴암은 아잔타 석굴 등과, 고려청자는 송대의 청자 등과 경쟁해야 하지만 고려불화는 독보적이다"라며 고려불화에 대한 예찬을 그치지 않았다.



구랍 25일 봉은사에서 '고려불화'와 관련해 특강한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고려불화는 2m 높이의 작은 탱화가 대부분이다. 원나라 시대 저술된 <도화견문록>에 고려불화를 두고 "섬세하고 화려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고려불화는 예로부터 예술성을 인정받아왔다.

고려불화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67년 일본의 미술사가 구마가이 노부오가 <조선학보> 제44집에 '조선불화징'을 게재하면서 고려 및 조선초기 탱화 70여 점이 일본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한데 이어 미술사가 고유섭 선생의 유고를 모은 '한국미술사급(및) 미학논고'에 '수월관음도' 등 고려불화를 설명하면서 알려졌다.

정우택 교수(동국대)에 따르면 현재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160여 점. 이중 대다수는 일본 등 해외에 반출된 상태다. 국내에는 '오백나한도' 외에 고려불화가 없었으나 호암·호림미술관에서 3점을 구입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여전히 고려불화가 없다.

유홍준 前 청장은 "일본 유명사찰에는 고려불화가 있지만 국내에는 드문 상황이 일제 약탈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前 청장은 "고려·조선시대에 정상적인 경로로 전해졌을 수도 있다"면서 "물방울 관음도 등 상당수 문화재 등은 약탈됐다며 돌려달라는 국민정서법 때문에 일본 측에서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주지 명진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대중스님들과 휴일을 맞아 봉은사를 찾은 신도 1000여 명이 보우당 안팎을 가득 메운 채 성황리에 개최됐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세계교수불자회 창립해 종교평화 기여"

교불련 제13대 회장 최용춘 교수



"(가칭)세계교수불자회를 창립해 학제간 종교평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랍 19일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출된 최용춘 교수(상지영서대·법명 碧峰·사진)는 교불련의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최용춘 회장은 "유럽 등 해외에서는 선(禪)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간화선 종주국인 한국불교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아쉽다"며 "임기 중 단체를 설립할 준비위원회를 태동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교수불자회는 불교 교류가 활발했던 동남아, 인도,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의 불자 교수와 불교에 관심 둔 교수까지 섭외하게 된다.

대외적 활동에 앞서 교수불자간 화합 도모 등 대내적 불교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 회장은 "교불련부터 교수불자수련대회 참여 회원을 늘이고 신입회원 관리를 강화해 일신(一新)하겠다"며 "불자교수를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로 위촉하는 방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학 불교학생회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종교와의 대화폭도 넓히게 된다. 현재 기독교교수협의회와 매년 개최하던 학술대회를 원불교, 가톨릭 등 다종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용춘 회장은 "각 종교단체와 관련한 교수는 물론 전법회관 등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도 모시고 공동세미나를 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불연(佛緣)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 "어려서 할머니 손 잡고 절을 찾던 기억이 난다"는 최용춘 회장은 두 아이 역시 태교부터 절에서 시작했다. 최 회장의 수행 주특기는 관음정근. 가정과 연구실에서도 짬짬이 관음정근을 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다. 최 회장 가족은 구랍 31일부터 신년 첫날에는 월정사를 찾아 10km 구간을 3보1배하며 새해를 맞은 불자가족이다.

최용춘 회장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諸惡莫作 衆善奉行)는 말은 세살 어린 아이도 알지만 팔순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며 이론에 머물지 않고 봉사와 수행으로 실천하는 불교를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장이 됐다고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불련 창립이념과 원로 선배 등 교불련 회원들의 대의를 존중해 교불련의 잠재력을 구체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대각사상' 11집 발간



<대각사상> 제11집.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구랍 30일 <대각사상> 제11집을 발간했다.

<대각사상> 제11집에는 2008년 1월 25일 영덕에서 열렸던 '나옹 왕사 재조명 학술세미나' 논문과 '백용성 스님의 대각과 불교에서의 깨달음'을 주제로 4월29일 대각사(주지 장산)에서 발표된 논문 등이 게재됐다. (02)581-3138

조동섭 기자

"미래 한일 불교학 지표 새롭게 정립"

'일본불교사 근대' 출간

현대 한국 불교학의 연원이 원효 등 한국 승려가 아닌 일본 불교학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근현대 일본 불교학계에서 한국 불교학계로 유입된 연구 성과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대 일본불교의 연구는 일본정신사의 재조를 넘어 미래 한일간 불교학 지표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 원영상·윤기엽·조승미 연구교수가 <일본불교사 근대>(동국대 출판부 刊)를 번역·출간했다.

<일본불교사 근대>는 근세 및 근대일본 불교사 전공자인 카시아하라 유센 명예교수(일본 오타니대)의 저서다. 1868년 메이지유신 이전 막부 말기의 사회적 변화부터 근대 일본불교를 서술한 책은 개항기 급변하는 정치외교적 상황에 맞춰 불교계 움직임을 기록했다. 교단불교를 비롯해 일반불교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불교적 활동이 엿보이는 카시아하라 명예교수의 서술방식은 근대 초기 불교교단을 엿보는 주요 관점으로 평가받는다.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의 일본 연호 순으로 전개된 책은 1945년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의 모습을 소개했다.

윤영상 연구교수는 "한국이 과거 백제로부터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 사실을 중심으로 일본불교 연구를 진행한 반면 일본은 한국에서의 불교유입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다"며 "일본불교와 한국불교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연구교수는 "현재 일본은 불교적 정신이 생활화된 국가로서 경제적 성장을 발판으로 국제 사회에서 정치·문화의 힘을 확장해가고 있다"며 일본불교를 정확히 이해할 것을 주문했다. (02)2260-3483



동국대출판부가 출간한 <일본불교사 근대>.

조동섭 기자

佛紀 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대승정 덕인당 석성제 예하
종 정 무학당 석송천 예하

승정원장 법선당 석무중 / 부원장 석무상 원로원장 월서당 석성묵 / 부원장 석법진

중앙종회의장 법화당 석일타
중앙종회 부의장 학성당 석정인 / 학철당 석정암
중앙종회 사무총장 석현우 법사

총무원장 법산당 석영봉
사정원장 법천당 석지산
포교원장 학산당 석정대 / 포교원부원장 석정산
교육원장 법성당 석지덕
문화원장 일현당 석덕일 / 문화원부원장 석보성
고시원장 법일당 석일각
수선원장 선재당 석도공
복지원장 법영당 석정도 법사
비구니원장 효경당 석지명 / 비구니부원장 석정명, 석정연
종정예하 예경실장 학림당 석정묵
총무원장 사서실장 겸 총무부장 아함당 석정행

서울교구원장 서원암 반야지 부산교구원장 반야사 일도
대구교구원장 범룡사 정산 정산대전교구원장 원광사 정인
울산교구원장 도성암 덕일 강원교구원장 지명정사 지명
경기교구원장 홍련암 홍련 충북교구원장 관음사 정명
충남교구원장 구암사 무중 무중전북교구원장 삼불사 정안
경북교구원장 정암사 정암 경남교구원장 금강암 정행

佛紀 2553年 己丑年 신년법어



종정 무학당 송천 예하

삼매불출(三昧不出)
좌여석상(坐如石上)
약일념즉(若一念則)
대천계진(大千界震)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증득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세상을 살기 좋은 극락정토로 구현함에 어찌 승·속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불교만큼은 이런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지 맙시다. 오로지 국익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일치단합 합시다. 또한 불교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성직자를 많이 배출하여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불법을 홍포하여 부처님의 참된 사상을 실현해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국익의 발전과 각 개개인의 인격완성에 모두 힘씁시다.

총본산(총무원) :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294-4 (일성사) 전화 : 042)524-2149, 935-2279, 011-406-8538 (사)대한불교 금강종 총무원장 석법산

내몸내가고치는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 자신 건강관리 / 따주기 사회봉사 /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과 인간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번에 아는 남·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5.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 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9. 1. 17(토) 오전 9시부터 ~ 1. 18(일) 오후 1시까지 (1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 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새 날을 기다리는 향일암

작은 불빛들
새벽 어둠속에서 반짝인다

관음전 동백나무에
쌓인 달빛

여명이 밝아오고
산새 한 마리가 고요하던
숲을 흔들어 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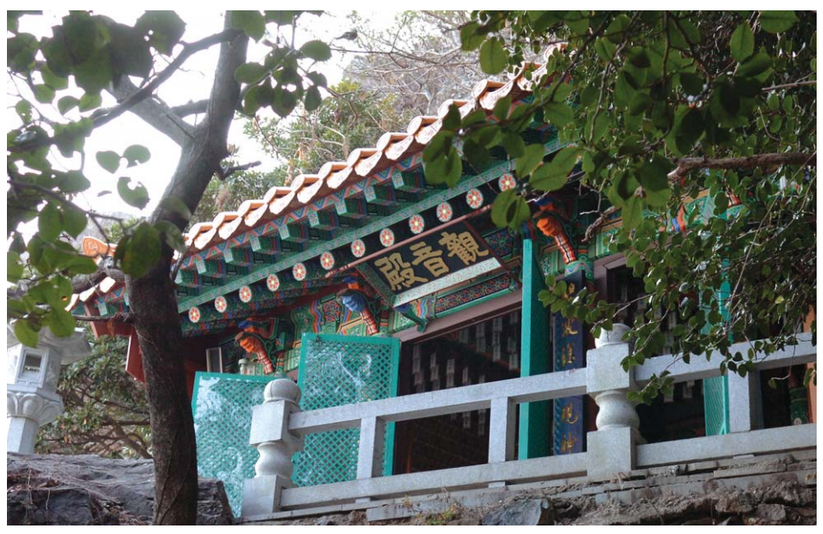
임포항의 작은 불빛들이 새벽 어둠속에서 반짝인다.
먼 곳에 있을 바다의 표정과 다가올 시간의 위대함이 잔잔한 파도 끝에 실려 오고,
저 멀리 금오산 기슭에 향일암이 보인다.
돌계단의 어둠을 밟으며 향일암으로 오른다.

문이 되어버린 바위틈으로 독경소리가 들려오고,
관음전 동백나무에는 달빛이 쌓인다.
어둠을 빠져나온 발걸음들이 관음전 마당으로 모여든다.
관세음보살의 시선을 따라 먼 어둠을 따라간 눈빛들이 하얀 입김을 쏟으며 일출을 기다린다.

어느새 여명이 밝아오고 산새 한 마리가 고요하던 숲을 흔들어 깨운다.
눈을 뜬 산새들이 소리에 소리를 물고 하늘로 날아간다.
마침내 바다의 끝이 어둠에서 일어서고 기다리던 눈빛들은 힘차게 붉은 해를 끌어올린다.
새아침이 밝는다.

잠 못 이룬 자의 길었던 밤도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아쉬운 날이 되었다.
오늘밤 또 관음전 마당으로 달빛이 쌓이고 향일암은 누군가의 긴 밤을 새울 것이다.
원효 스님의 좌선대 바위 위로 아침햇살이 다가와 앉는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2672호

코한방(韓方)
코막힘,비염,축농증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막힘,비염,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원장 노 동 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 053)552-8800

느림의 수행법 사경 '지금 이 순간'에의 몰입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회장.

기도·염불 타파에는 일자불·불보살명호·다라니 사경
화두 타파에는 게송 사경, 진리 보려면 경전 사경이 효과적

5 생활 속의 사경수행

#사경은 형상으로 나툰 법신부처님

사경수행은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베껴 쓰면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수행법입니다. 이러한 사경수행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대승경전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까지 법신인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정진해 물러나지 않으시고 수없이 많은 몸과 목숨을 보시하고 살갗을 벗겨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사경하기를 수미산만큼 하였다."(<화엄경> '보현행원품')

이와 같이 경전에서는 사경이 수행과 신행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전 광선유포의 공덕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 해 여법한 사경을 사성하는 과정은 바로 부처님을 향해 오체투지로 나아가는 가장 간절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경은 내면에 갈무리되어 있던 본래의 불성을 직접 체득하는 수행법입니다. 여기서 불성은 진리의 법체인 비로자나부처님을 말함이요, 이렇게 직접 체득한 진리의 말씀이 사경수행을 통해 형상(문자)으로 나투신 법신부처님이 바로 사경입니다. 이렇게 사경수행은 내재된 불성을 보는 수행법임과 동시에 그 부처님을 형상으로 조성하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법신부처님, 사경은 많은 이들에게 환희심과 감동을 불러일으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널리 삼천대천세계를 이롭게 합니다. 하니 그 공덕에 대한 설명이 어찌 필설로 가능하겠습니까.

#사경은 의식과 감각을 총동원하는 종합수행

사경수행은 종합적인 수행법입니다. 사경수행은 우리의 모든 의식과 몸의 감각을 총 동원하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눈으로는 경전을 관(觀)하고 입으로는 독송하며 귀로는 듣고 손으로는 쓰면서 부처님 진리의 법체(法體)를 한 자 한 자 마음에 오롯이 새기는 수행법입니다. 여기에 재료와 도구가 따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에 따르는 지혜와 공덕 또한 여타의 수행법에 비할 바 아닙니다.

사경수행은 느림의 수행법입니다. 이는 현재성, 즉 '지금 이 순간'에의 몰입입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마음과 뒤처지는 마음을 늘 현재에 머물게 하는 수행법인 관계로 사경수행시 모든 외부와 마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오직 현재의 법신부처님만이 존재하면서 사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 그 자체에 번뇌라든지 망상 따위는 발붙일 수 없으며 모든 업장은 자연 소멸됩니다. 느린 수행법인 만큼 평소 지나쳤던 본성을 제대로 보게 되고 오롯이 자신의 불성에 충일할 수 있습니다. 즉 사경수행의 순간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경수행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레 지혜가 자랍니다.

사경수행은 불성이 표출되는 수행법입니다. 여타의 제 수행법들이 주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사경수행법은 내면이 형식을 통해 지면에 표출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자체 점검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사경은 개인에 머물지 않고 널리 이웃에 전달됩니다. 이 점에서 파급 효과가 어느 수행법보다도 수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경수행의 종류

사경수행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히는 머릿속에 경전의 글귀를 새기는 방법, 컴퓨터의 자판을 이용하는 방법, 펜과 같은 경필을 사용하는 방법, 붓과 같은 모필을 사용하는 방법, 더 나아가 금니나 은니와 같은 귀중한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합니다. 재료와 도구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목판경, 석판경(석경), 금판경, 동판경 등도 사경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경수행은 보다 지난한 오랜 수련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대구 보현사 신도들의 <금강경> 사경수행 모습.

내용상으로는 '佛' '法' 등의 글자를 반복해 서사하면서 내면의 불성을 관(觀)하는 '일자불(一字佛)사경'과 '南無釋迦牟尼佛' '南無阿彌陀佛' '南無觀世音菩薩' 등을 반복적으로 서사하는 名號사경, 주문·진언·다라니 등을 반복적으로 서사하는 다라니사경, 경전의 게송을 반복적으로 서사하는 게송사경, 경전을 서사하는 사경 등 매우 다양합니다.

사경수행의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내용도 그 본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이 대기설법인 것처럼 자신의 근기에 맞는 사경수행법을 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기도나 염불의 방편으로 사경수행을 할 때에는 방대한 분량의 경전을 사경하는 것보다는 일자불사경이나 불보살명호사경, 다라니사경 등이 보다 효과적이고, 간화선과 같은 화두 타파를 목적으로 사경수행을 할 때에는 게송사경이 보다 효과적이며, 불교의 모든 종파를 포섭하는 부처님 진리를 바로 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경수행을 할 경우에는 경전의 사경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경수행의 방법도 일상의 장애와 번뇌·망상을 물리치고 부처님의 혜명을 이으며 지혜의 증장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 마음·몸·재료·도구의 청정과 조화 필요

사경수행은 마음·몸·재료와 도구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사경수행의 의미가 상쇄됩니다. 그리고 이들 3요소의 핵심에는 청정이 자리합니다.

몸의 청정을 위해서는 음식의 조절(調食), 수면의 조절(調睡), 건강 관리(調身), 호흡의 조절(調息)을 생활화해야 하고, 마음의 청정을 위해서는 탐진치(貪瞋癡)를 조절해야 하며 재료·도구를 청정히 하는 평소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3요소를 청정히 하는 과정이 곧 진실한 사경수행의 첫걸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경수행 또한 여타의 수행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계가 무르익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떠나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는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납탑 및 불복장 봉안사경 등이 많이 행해지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경이라 하더라도 여법하지 않으면 마구니의 소행입니다. 즉 사경을 할 당시에는 환희심이 유발되지만 종국에는 업장을 두텁게 하는 일입니다. 입에 단 음식이 후일 몸을 망치듯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 사경수행의 핵심은 비움과 감사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든 수행은 자아를 비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아를 비운다는 말은 나와 남을 분리해 나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곧 삼천대천세계라는 인식은 곧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한 생각과 행동이 삼천대천세계를 움직인다 생각하면 한 생각 한 행동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경수행을 할 때, 유정무정의 만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럴 때 자아는 사라지고 현재의 부처님만이, 즉 사경수행을 하는 부처님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사경수행을 마친 후 회향게를 서사하고 독송하는 것입니다. 여법한 회향은 털끝만한 공덕까지도 모두 중생에게 나눠주는 최상의 보시입니다.

그리고 사경수행시에는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내면에 침잠하는 수행이기도 하지만 부처님 법사리를 조성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경수행에의 전심전력은 깊은 신심 위에 큰 원력을 세울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은 신심과 큰 원력은 사경수행에 대한 확고한 목적이 섰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경수행의 목적을 먼저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사경수행시 주의할 점

사경수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는다 싶을 때에는 마장이 생기곤 합니다. 이때 생기는 흔한 마장이 아상의 증가입니다. 이때에는 다시 초발심으로 돌아가 냉철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구니는 주위에 철옹성을 쌓고 그 성곽은 자꾸 안으로 조여들어 사경수행자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억압합니다. 따라서 사경수행자는 아상의 발호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경수행을 하면서 결과물인 형상(글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또한 마장입니다. 이 또한 상대적인 비교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와 같은 경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사경수행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내외면의 합일로 이루어진 사경의 글씨는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법신부처님,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지혜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개별적인 차별은 무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경수행을 통해 부처님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그 광명으로 비추어 사경을 본다면 이러한 경계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 부처님 法燈 밝혀 기쁨과 행복 누려요

사경수행에 정진을 거듭하게 되면 외적인 경계는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면 사물이 비치지 않지만 바람이 멎어 파도가 잠잠해지면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경수행은 바람을 멎게 해 내면의 파도를 잠재움으로써 자성을 비추는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자성이 드러날 때 지혜 역시 밝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많은 대중들은 경제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경제문제 또한 숱한 파고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돈이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 줄 뿐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면 돈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이웃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뿐만 아니라 돌고 돌아 나 자신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 줍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진리를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지나친 욕심과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사경수행은 지혜의 싹을 틔우고 생장시킵니다. 그리하여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업장을 소멸시킴으로써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장애를 걷어내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합니다.

많은 불자 또한 타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수복(壽福)을 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경수행자들은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경수행이 바로 수복을 얻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법신사리인 사경을 법다이 장엄해 많은 이웃에게 감동과 기쁨과 환희심, 자비심을 갖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보시이자 공덕을 쌓는 일이며 최상의 수행입니다. 사경수행자들은 이를 굳게 믿고 더욱 정진해 제불보살의 은혜를 갚도록 해야겠습니다.

외길 김경호(한국사경연구회 회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9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월 8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월 9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야 상담 합니다

“원당암에 갈 수 없다면 큰스님 사리라도 친견하자”



겨울비가 오는 둥 마는 둥 했다. 비구름은 여전히 흩이불처럼 산허리를 덮고 있었다. 공방(工房) 마당까지 굴러온 가랑잎들은 더 이상 뒤척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겨울비에 젖어 마당 곳곳에 파충류의 허물처럼 난감하게 붙어 있을 뿐이었다.

대연(大然)거사는 앉은 자세로 밤을 새우다 새벽 무렵에야 눈을 좀 붙였다가 떴다. 또 뜬눈으로 밤을 보낸 셈이었다. 가랑잎 구르는 소리에 밤을 새웠던 것이다. 가랑잎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소리처럼 아득했다가도 물이 들어오는 밀물소리처럼 또렷하게 귓전을 맴돌았다. 가랑잎은 세월의 질곡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파열음 같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실패와 좌절이 더 많았던 대연거사로서는 자신의 가슴을 치는 소리로 들었다. 그 소리들이 끊긴 것은 새벽녘에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기 때문이었다. 어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겨울비는 수면제와 같았던지 의자에 앉은 대연거사를 잠깐 졸게 했던 것이다.

무량광도예(無量光陶藝)–.

대연거사는 공방 현관에 놓인 대빗자루를 들었다가 놓았다. 마당에는 가랑잎뿐만 아니라 알록달록한 감나무 잎까지 떨어져 있었다.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다고 했던가. 낙엽은 쓸지 않아도 바람을 만나 제 갈 길을 찾아갈 터였다.

공방 안은 장작이 타는 화목난로가 있어 따뜻했다. 뜨거운 김을 내뿜는 주전자에서는 찻물이 끓었다. 대연거사는 다관에 발효차 잎을 넣고 펄펄 끓는 물을 부었다. 잔에 부어지는 찻물은 달빛과 흡사했다. 찻잔 밖은 소나무 껍질빛깔이었지만 찻잔 안은 백자 유약이 발라져 불그스레한 찻물이 더욱 도드라졌다. 다관과 찻잔은 물레질을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만 만든 다기였다. 교통사고로 어깨뼈를 다친 후 물레질을 할 수 없는 고통스런 처지에서 착안해낸 작은 다기들이었다. 앞으로도 완력이 필요한 큰 작품들은 어깨뼈가 완치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 그러나 대연거사는 궁여지책으로 작은 다기들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차는 각안 스님이 놓고 간 발효차였다. 지난 달 각안 스님이 공방을 느닷없이 찾아와 발효차를 한 봉 주고 갔던 것이다. 공방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에 쌍봉사가 있는데, 각안스님은 쌍봉사 스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인지 그곳 스님에게 대연거사의 소식을 듣고 공방까지 올라왔던 것이다.

각안 스님은 해인사 원당암을 떠나 송광사 포교국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면서 보성군 문덕면에 위치한 봉갑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었다. 천봉산 산자락에 자리한 봉갑사는 영광의 불갑사, 영암의 도갑사와 함께 호남의 삼갑(三甲)이라 불리며 한반도의 국운을 주춧돌처럼 지탱하고 있다는 도선 국사의 비보풍수가 서린 유서 깊은 절이었다. 각안 스님은 언제 보아도 침향처럼 온몸이 맑았다.

“거사님, 몇 년 만인가요. 대학을 그만두고 남도산중에 공방을 지어 내려왔다는 얘기를 쌍봉사 주지 스님한테서 들었습니다.”

“스님을 뵌 지 6년 만이네요.”

“평생을 오직 일주일만 생각하며 일주일 후 깨닫지 못하면 태평양 바다에 빠져죽겠다는 각오로 정진하셨다는 말씀에 숙연해지곤 합니다”

정확하게는 6년이 조금 못되었다. 혜암스님이 열반에 든 다음해에 출가하려고 원당암을 찾아갔다가 각안스님을 만나 입산을 포기했던 것이다. 그때 각안스님은 은사인 혜암스님이 남긴 법문 테이프를 여러 개 주면서 반드시 출가해야만 불법(佛法)을 깨달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던 것이다.

“한 달 후면 혜암 큰스님 7주기이군요.”

“바쁘시지 않으면 해인사 원당암으로 오시지요.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어느새 7주기입니다.”

“큰스님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늘 숙제를 하지 못한 학생 같은 기분입니다.”

“큰스님 법문 테이프는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평생을 오직 일주일만 생각하며 일주일 후 깨닫지 못하면 태평양 바다에 빠져죽겠다는 각오로 정진하셨다는 말씀에 숙연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을 가야산 정진불이라고 합니다. 참선 수행자로서 본분사(本分事)를 저버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평생 동안 입적하실 때까지 눕지 않았던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각안 스님은 혜암 스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차를 마시고 나서야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다.

“저는 지금 봉갑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송광사 포교국장 소임도 겸하고 있고요.”

“원당암에 오래 계실 것 같더니 왜 떠나셨습니까.”

대연거사는 각안스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스님은 은사 혜암스님이 입적한 후에도 원당암에 남아 ‘혜암스님의 사리탑도 조성하고 법문집도 발간하겠다.’ 고 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며 진정한 시봉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인연이 다한 것이지요. 봉갑사에 있으나 원당암에 있으나 큰스님을 시봉하는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그러니 원당암을 떠났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스님 사리를 몇 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갑사에 큰스님의 사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법당 안의 보각(寶閣)에 모시고 있습니다. 대연거사님, 언제든지 오셔서 친견하십시오. 아마도 큰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연거사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봉갑사로 가 혜암 스님을 뵙고 싶다는 마음이 사무치게 솟구쳤다. 혜암 스님이 해인사 방장스님으로 계실 때, 실제로 친구인 기자를 따라 내려가 친견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각안 스님이 원당암에 있는 줄 모를 무렵이었다. 혜암 스님이 입적하기 2년 전의 일로 인터뷰하려던 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해인사를 내려가 방장실인 퇴설당에서 스님을 뵀던 것이다.

친구의 강권으로 휴강까지 하고 내려가 혜암 스님을 뵈었는데, 천진하면서도 단호하고 결기를 풍기는 말투가 두고두고 생각났다. 그때 기자인 친구에게 자신의 고통을 대신 묻게 했는데, 스님은 진흙으로 불상을 조상(造像)하는 것처럼 고통과 번민을 기쁨으로 환치해버리는 수행자의 방식으로 말씀했던 것이다.

–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몇 년째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예를 하는 친구인데 부러진 양쪽 어깨뼈의 상처가 깊어서 물레질을 못한다고 합니다. 힘쓰는 일을 못하니 흙을 만지지 못하고 강의만 한다고 그러는데 괴롭다고 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저잣거리 사람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인과법칙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인과법칙 속에 있습니다.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자작자수(自作自受)입니다. 내가 지어 내가 받을 뿐이지요. 하늘이 주고 땅이 주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은 분명코 없습니다. 알고 보면 전부 내가 지난날 만들어 왔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달게 받아야 합니다. 내 빚 하나 갚았다 생각해야 합니다. 업을 지어놓으면 무량겁을 지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받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 하나 갚을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 나로서는 즐겁고 기쁠 때구나 하고 생각할 일밖에 없습니다. 인과법으로 보자면 빚을 진 내가 빚 갚을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 빚 갚을 시간이구나 하고 좋은 일로, 행복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돌려야지 사람을 원망하고 또 자기가 당한 사고를 재앙으로만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은 분명코 없습니다. 알고 보면 전부 내가 지난날 만들어 왔기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달게 받아야 합니다”

대연거사는 차를 두어 잔 마신 뒤 일어섰다. 달력을 보니 공교롭게도 내일이 11월 17일(음력)로 혜암스님 7주기 날이었다. 비는 더 내릴 것 같지 않았다. 비구름이 쌍봉사 경내까지 내려와 쌍봉사 가람들과 삼층 목탑은 운무 속의 일엽편주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그래, 해인사 원당암으로 갈 수 없다면 봉갑사에 모셔져 있다는 혜암 큰스님의 사리라도 오늘 친견하자.’

대연거사는 마음이 격동되어 참을 수 없었다. 봉갑사는 공방에서 승용차로 3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대연거사는 공방 문을 잠그고 난 뒤 승용차를 탔다. 화순군 이양면에서 보성군으로 넘어가는 계당산 산자락의 재를 하나 넘으면 바로 복내면 소재지가 나타나고, 봉갑사가 자리한 문덕면 천봉산 산자락은 복내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도로는 겨울비에 젖어 축축했다. 봉갑사 가는 길의 벚나무 가로수는 앙상했다. 나뭇잎 하나 용납하지 않는 비장함이 어쩐 일인지 아름답게 보였다. 차갑게 드러난 저 나목 속의 혼(魂)들이 봄을 기다렸다가 화려한 꽃잎으로 만발할 터였다.

대연거사는 봉정교 입구에서 좌회전을 하여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봉정교 머리에 ‘천봉산 봉갑사’라고 쓰인 입간판 이정표가 보였던 것이다. 산길 오른편으로는 제법 큰 호수가 보였다. 그러나 지난 가을 내내 지독한 가뭄에 시달린 호수는 거대한 웅덩이처럼 바닥이 말라가고 있었다. 대연거사는 승용차에서 내려 호수 건너편에 지어진 학교로 추정되는 건물을 바라보았다. 시멘트 2층 건물 중앙에서는 붉은 깃발이 펄럭였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불교를 상징하는 깃발이었다. 원래는 학교였으나 지금은 봉갑사에서 문화원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분명했다.

그때 산길 저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젊은 스님이 바랑을 메고 산길을 걸어내려 오고 있었다. 대연거사는 먼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젊은 스님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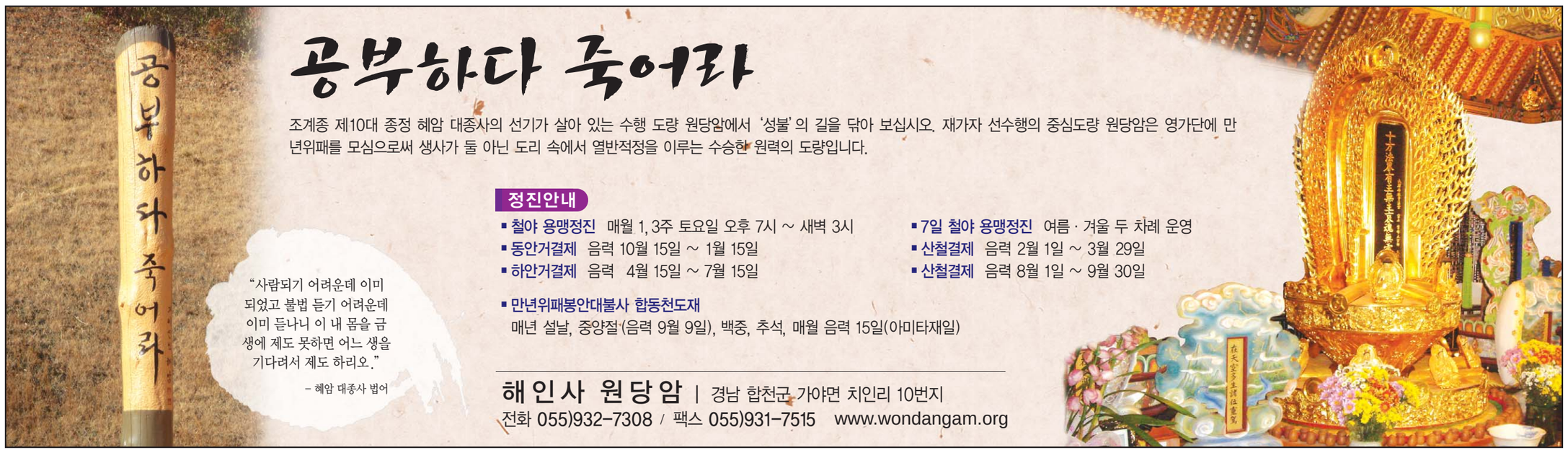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봉갑사 각안스님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스님께서 마침 절에 계십니다. 오늘은 송광사에 가시지 않는 날입니다.”

젊은 스님은 곧 장삼 자락을 떨치며 바삐 사라졌다. 대연거사는 다시 승용차로 산길을 달렸다. 봉정교에서 봉갑사까지는 지척이었지만 천봉산의 산자락들이 첩첩하고 산모퉁이들이 여러 번 굽이쳐 절로 가는 산길은 실제 거리보다 멀게 느껴졌다.

천봉산 산봉우리는 아직도 비구름에 덮여 보이지 않았다. 봉갑사 부근 산길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산자락에 진을 친 비구름이 예고 없이 찾아가는 사람의 출입을 거부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연거사는 혜암 스님의 사리를 떠올리며 승용차 기어를 2단으로 바꿔놓고 오르막 산길을 올랐다. 〈계속〉



우리 종단을 말한다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 경암 스님

"법화삼매 통해 인류 성불 서원"

"온갖 중생도 이와 같아서 여래의 큰 가르침의 보장이 그 몸 안에 있건만, 그것에 대해 들은 바 없기에 알지 못해서 오욕에 빠져든 나머지 생사에 윤전하여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타나사 중생의 몸 속에 여래장이 있음을 관찰하시고, 여러 보살을 위해 이 법을 설하셨느니라."<여래장경>

대한불교불입종(종정 면철)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出世本懷), 즉 '개시오입불지지견(開示悟入 佛之知見)'을 종지로 태허홍선 조사가 1965년 12월 8일 창종 했다. 본 종단은 <묘법연화경>의 법음인 '나무 삳달마 푼다리카 수드라(南謨 薩達摩 芬多利伽 修陀羅)'를 주력염송 함으로써 법화삼매에 들고, 이를 정혜겸수(定慧兼修)로써 체득해 인류의 성불을 실현코자 한다.



경암 스님.

또한 기복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아닌 '복될 일을 하자'는 불교, 재래 인습적이고 타율적인 종교가 아닌 자율적인 종교로서 자오(自悟), 자각(自覺), 자증(自證)의 불교 신앙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총본산 송화사(충북 제천시 봉양읍)를 비롯한 전국 150여 사찰과 230여 스님들이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송화사는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수행하면서 대중불교운동을 지향하는 법화신앙(法華信仰)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았다.

불입종은 불교예술제 '보시의 밤'을 개최하고, 영산대재를 봉행하는 등 다양한 법회 · 문화행사를 봉행하고, 법화행자운동 · 보살도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에는 추수감사 보은을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와 동포,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의식을 한 달간 순회 법회로 봉행한다.

특히 본 종단은 불교, 나아가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해 정기적인 법회를 봉행하고, 청년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자오 · 자각 · 자증의 불교 신행이 목표

1988년 12월부터 종립 법화유치원을 개원 ·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자비어린이회(초등학생) · 오파야학생회(중학생) · 비리야학생회(고등학생) 법회를 각각 정기적으로 봉행한다. 본 화불교청년회, 마야부인회, 법련회, 유마거사회, 화심회, 총신도회 등 계층 신도회도 활성화돼 있다.

앞으로 불입종은 행자 수련원을 설치해 종도 교육을 체계화하는 한편, 총본산 송화사 성역화 사업 및 전통사찰 등록, 태허홍선 대조사 조사당 건립 등을 통해 종단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 법화유치원 확장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힘쓰고, 유발포교사 양성제도를 활성화해 계층 포교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043)653-4848

정리=김진성 기자

"남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97주년 법요식 성료…이 대통령 봉축 메시지

"상월원각 대조사님은 천태종단의 뿌리이며 샘으로, 대조사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종단은 '뿌리 없는 나무', '샘 없는 물'과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97주년 봉축법요식이 구랍 25일 총본산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됐다. 이 날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정산 스님, 주성영 · 최연희 국회의원, 정우택 충북도지사, 권경상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 대조사의 유지를 기렸다.



구랍 25일 구인사에서 봉행된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97주년 법요식.

정산 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날처럼 갈등과 분열, 대립이 횡행하는 시절에는 전 인류에게 대조사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다"며 "대조사님께서 강조하신 '나와 남이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기에 남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깨우침 없이 이 위기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총무부장 무원 스님이 대독한 봉축 메시지를 통해 "대조사께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 수행하는 '주경야선(晝耕夜禪)'의 새로운 종풍을 세우셨다"며 "대조사님의 높으신 뜻과 가르침이 온 누리에 널리 퍼져 나기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 서민과 어려운 이웃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다"며 "불교의 자비와 이타의 가르침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축사(사회부장 세영 스님 대독)에서 "상월 대조사님은 일제 암흑기에 태어나 국민교화, 불교선양에 평생을 바쳤고, 천태종을 한국불교 3대 종단으로 우뚝 세워 놓았다"며 "이는 상월대조사의 수행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의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헌향 · 헌화 · 헌다 △봉축사 △축사 △삼룡사 삼화합창단의 봉축가 △관음정진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권경상 종무실장 대독), 정우택 충북도지사, 송광호 제천 · 단양지역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고, 국회 민주당 연등회 회장 최문순 의원은 축전을 보내왔다.

상월원각 대조사는 15살에 법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45년 소백산 기슭에 구인사를 창건하고, 1966년 맥이 끊겼던 천태종의 중흥을 이끌었다. 또 1967년 천태종을 문화공보부에 정식 등록한 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종단 3대 지표로 삼아 교세를 확장해 천태종의 중흥조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천태종은 구랍 31일 구인사에서 대충 대종사 탄신 83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대충 대종사는 1945년 상월원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 1974년 상월원각 대조사 열반 후 천태종 2대 종정에 취임해 1993년 열반 때까지 20여 년간 천태종단 안정과 발전에 기여 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마음으로 닦는 목욕 봉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목욕 봉사 동참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오른쪽)과 사회부장 경천 스님(가운데)이 단양방문목욕센타에서 봉사를 하고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사회부장 경천 스님(천태종복지재단 상임이사)이 구랍 26일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단양방문목욕센터를 방문해 노인 목욕 봉사에 동참했다.

이날 천태종 스님들은 노인요양보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목욕차량 내 설치된 장비를 이용, 원 모(64 · 단양군 가곡면) 할아버지에게 목욕 봉사한 후 휠체어를 이용해 댁까지 모셔다 드렸다. 원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해 매주 방문목욕을 받고 있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해두)은 2007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지원받아 2008년 3월부터 중증 장애인 및 노인성 치매 질환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중증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목욕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천태종 수련법회 잇따라 개최

교원불자 · 청년회 동계수련법회

천태종 청년회 및 교원불자 동계수련법회가 잇따라 열린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월 2~4일 총본사 단양 구인사에서 제32회 전국청년회 동계수련법회 '몸도 마음도 부처님처럼'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중앙청년회, 전국청년회, 후원회, 학생지도교사연합회 소속 불자들이 참가해 2박 3일 동안 △관음정진 △적멸궁 참배 △불교적 경제관 강연 등을 체험했다.

이어 천태종은 1월 9~11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제24회 전국 교원불자 동계수련법회 '내안의 부처님을 찾는 산사체험'을 개최한다.

전국 교육관련 불자(교육 전문직 및 행정직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법회는 9일 입제식 및 관음정진, 10일 △대조사전 참배 △큰스님 친견 △경전이 들려주는 아(我) 최봉수 교수 강연 △불교요가 △108참회 △참선, 11일 서원 적기 및 회향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금강대 어린이 영어캠프 개최

천태종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가 1월 12~21일 '제6회 금강대학교 어린이 영어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교육과 △영어 퀴즈 · 게임 △영어 애니메이션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금강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 정원을 15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반마다 외국인 강사 1명과 보조강사 2명을 배치했다"며 "주입식 영어 교육에서 벗어나 즐기며 체험하는 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집기간은 10일까지 이며, 참가비는 55만원이다. 기존 참가자와 형제 · 자매가 함께 등록하면 각각 5만원, 천태종 사찰 주지 스님 추천자는 10만원 할인 받을 수 있다. (041)731-3583

김진성 기자

진각종 1월 5~11일

새해 대서원 불공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1월 5일~11일 국내 · 외 각 심인당에서 '새해대서원불공'을 봉행한다.

'나라의 안녕과 경제발전'을 서원덕목으로 정해 봉행되는 이번 불공은 진각종 1월 월초불공을 겸해 봉행된다.

이와 관련해 진각종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불공은 인류의 심성을 정화하고, 세계정제 정상화와 정치문화 향상, 경제회복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단의 교법질서 호지로써 교화활성화와 진각행자의 종지확립 및 신심증진 등을 서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각종 새해대서원불공은 새해를 맞아 진언행자들이 한 마음으로 총인 도흔 정사가 밝힌 서원덕목을 받들어 실천 · 수행하고, 중생의 이익과 안락 및 현세정화를 이뤄 만다라 세상이 구현되길 발원하는 진각종의 대표 불공 중 하나다.

김진성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02-2004-8200







하심·공경은 '人佛사상' '본래성불' 실천하는 구도행

'법화경' 상불경보살품 믿고 받아지녀 실천합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무차별 폭격, 2000여 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는 문명시대에 믿기 어려운 종교전쟁이 재연되고 있다. 나의 신은 옳고 너의 신은 마구니라는 이분법적인 분별심에서 기인한 '무지'는 상대방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으려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테러와 전쟁이라는 '분노'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전쟁은 물론,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과 분쟁, 분열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저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평등한 마음이 회복돼야 한다. 나아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사회, 국가, 인류는 저절로 평화와 행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아상(我相)과 아집(我執)을 버리기 위해 끝없이 하심하는 동시에 이웃을 존중 · 배려하며 보살도를 실천하는 대승불교의 정신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법화경>에서 모든 이를 부처로 보고 공경 · 찬탄하며 하염없이 자신을 낮추는 '상불경보살'의 바라밀행은 구도자의 자세인 동시에 배려와 소통,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말법 시대에 교만한 불교도가 생겨서 정법이 흐려지게 됐을 때 등장한 상불경이란 비구스님은 부처님 전생의 모습인 동시에 보살도를 닦는 우리시대 불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나는 당신을 깊이 존경해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다 보살도를 실천하여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불경보살의 끝없는 예배와 찬탄은 '누구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授記)인 동시에 모든 이가 부처님 아들, 즉 '불자(佛子)'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사람이 부처'라는 '인불(人佛)사상'은 <법화경> 뿐만 아니다. 모든 경전과 조사어록의 공통된 가르침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라고 했으며, 조사스님들은 한결같이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는 의미의 '본래성불(本來成佛)'을 강조하고 있다.

야보 선사는 <금강경오가해>에서 "당당한 대도여! 밝고 분명하도다.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고, 저마다 다 이뤄져 있네"라고 노래했다. 또 황벽 선사는 <완릉록>에서 "보리 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오직 일심(一心)의 법만 전하셨으며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들어 보여주셨다. 그것은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그대의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본성을 볼 일이지 특별히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다"고 했다. 간화선의 완성자인 대혜 선사도 <서장>에서 "이 마음이 바로 본래 이뤄져 있는 부처임을 깨달으면, 온전한 자유 속에서 일마다 안락할 것이다. 가지가지 묘한 작용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스스로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확대 해석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짓밟아야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 이런 각박한 시기에 상불경보살의 외침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웃, 낯선 이와의 갈등으로 증오심이 올라올 때, 상불경보살의 온화한 미소를 떠올려보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실참해 보자. 올 한 해는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을 읽고 외우며 진심으로 믿고 받아지녀, 하심 · 공경하는 보살이 돼 보자.

김성우 기자



용주사가 2003년 개최한 효축제 '제1회 화성 용주사 승무제'에서 봉행한 지역 어르신들의 백수연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화경'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

모든 이 예배 찬탄하며 "마땅히 성불할 것"이라 수기

"'법화경' 받아 지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이를지니"

그 때 부처님께서 득대세보살(得大勢菩薩)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알아라. 만일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지니는 이를,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 욕설하거나 비방하면 큰 죄를 받을 것은 앞에 말함과 같고, 그의 얻는 공덕도 전에 말한 것과 같아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이 청정하리라.

득대세보살이여, 지나간 옛적 한량 없고 그지 없고 부사의한 아승지겁 전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위음왕(威音王; 불경에 보이는 최초의 부처님. 과거 대겁인 장엄겁 이전 공겁(空劫) 때의 부처님. 선종(禪宗)에서는 진실의 세계를 '위음왕불 이전'의 소식이라 한다.)여래 · 응공 · 정변지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 · 세존이시고, 겁의 이름은 이쇠(離衰; 쇠약함이 없음)요, 국토의 이름은 대성(大成)이었느니라.

그 위음왕부처님이 그 세상에서 천상, 인간과 아수라를 위해 법을 말씀하시는데,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제 법을 말씀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뛰어나 끝끝내 열반케 하시고, 벽지불을 구하는 이에게는 십이인연법을 말씀하며, 보살들에게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인해 육바라밀다 법을 말씀해 끝끝내 부처의 지혜를 얻게 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이 위음왕부처님의 수명은 40만억 나유타 항하사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효는 한 남섬부주 티끌 수와 같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효는 4천하의 티끌 수와 같느니라.

그 부처님이 중생을 이익케 하신 연후에 열반했고, 정법과 상법이 다 없어진 뒤에 이 국토에 또 부처님이 나셨으니 역시 이름이 위음왕여래 · 응공 · 정변지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 · 세존이었느니라.

이렇게 차례차례로 2만억 부처님이 나셨는데 모두 이름이 같았느니라. 최초의 위음왕여래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없어지고, 상법 동안에 뛰어난 체 하는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지었고, 그 때 한 보살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은 상불경이라 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경이라 했느냐. 이 비구는 무릇 만나는 이가, 비구거나 비구니거나 우바새거나 우바이거나 간에 보는 대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매우 공경하고 감히 경멸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다 보살의 도를 행해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 비구는 경전을 전심해 읽거나 외지는 아니하고 다만 예배만을 행하는데, 멀리서 4부대중을 보더라도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나는 그대들을 경멸하지 않노라, 그대들은 다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했다.

4부대중 가운데 성을 잘 내는, 마음이 부정한 이가 있다가 욕설하면서 말하기를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와서 스스로 자기는 우리를 경멸하지 않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수기를 주느냐. 우리는 그런 허망한 수기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항상 욕설을 당하여도 성도 내지 아니하고 항상 말하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했느니라.

이렇게 말할 적에 여러 사람이 작대기로 치거나 돌을 던지면 피해 달아나 멀리 떨어진 뒤, 음성을 높여서 외치기를 '나는 그대들을 경멸하지 않노라. 그대들은 다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했느니라.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므로, 뛰어난 체하는 비구, 비구니와 우바새, 우바이들이 별명을 지어 상불경(常不輕; 항상 경멸하지 않는)이라 하였느니라.

이 비구는 임종을 당해, 허공 중에서 위음왕불이 앞서 설하신 <법화경> 2000만억 게송을 듣고 다 받아 지니어, 이와 같이 눈의 청정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의 청정을 얻었느니라. 여섯 근이 청정해진 뒤에 다시 수명이 200만억 나유타 해가 중장돼 여러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을 널리 설했느니라.

이 때, 뛰어난 체하던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들로서 이 사람을 천대해 상불경이라는 별명을 지었던 이들은, 그가 큰 신토의 힘과 말하기 좋아하는 변재의 힘과 매우 착하고 고요한 힘을 얻은 것을 보고 그 설하는 바를 듣고는 모두 믿고 복종했느니라.

이 보살은 다시 천만억 무리를 교화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머무르게 했느니라. 목숨을 마친 후에는 2000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다 이름이 일월등명(日月燈明)이시라.

그 불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그 인연으로 다시 2000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다 같이 이름이 운자재등왕(雲自在燈王)이시라. 이 여러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4부대중을 위해 이 경전을 해설했으므로, 이 예사 눈이 청정하고 귀, 코, 혀, 몸, 뜻이 청정하게 돼 4부대중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는 데 두려운 마음이 없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이 상불경보살마하살은 이러한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해 모든 선근을 심었고, 그 뒤에 또 천만억 부처님을 만나 그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해 공덕이 이루어져 성불하게 됐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때의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내 몸이 었으니, 내가 과거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지 아니했더라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빨리 얻지 못했으리라.

내가 앞서 부처님 계신 데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다른 이에게 설했으므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빨리 얻은 것이니라.

득대세여, 그때의 4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들은 성내는 마음으로 나를 천시했으므로, 200억겁 동안에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고, 법을 듣지 못했고, 스님네를 보지 못했으며, 1000겁 동안 아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느니라.

그 죄보가 끝난 다음 다시 상불경보살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교화를 만났느니라.

득대세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때의 4부대중으로서 이 보살을 경멸하던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 이 회중에 있는 발타바라 등 500 보살과 사자월(獅子月) 등 500 비구니와 사불(思佛) 등 500 우바새이니,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이들이니라.

득대세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마하살들을 크게 이익되게 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마하살들은 여래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항상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해설하고 베껴 써야 하느니라."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부장
무 량 사
주지 혜철당 명각
신도일동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팔미부락 468번지
전화 055)744-6188 / 010-4871-2745

불교를 배우면 행복해집니다.
대한불교 (재)선학원 죽림선원
조계종 죽 림 불 교 대 학
광양시 금강정사 금강불교대학(전남 광양시 광영동)
주지 각 원 합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 17-6번지
전화 051)507-5118,070-8274-5118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회주 불국정관
주지 금당범산
• 영주암 유치원 · 어린이집
• 노인요양원 상락정
• 양정 청소년 수련관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요양원 영주홈
• 사회복지시설 컴넷하우스
• 부산광역시 청소년 쉼터
•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 수영구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50
TEL 051)754-2210
http://www.bulgukto.or.kr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 승가대학원
회주 명성
주지 진성
대중일동
www.unmunsa.or.kr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2-8800, 370-7100
FAX 054)371-0359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 구 교 구 청
교구청장 관천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마음을 알면 평등이고 모르면 불평등”

대정 스님 (범어사 선덕)

삼대독자에다 만석꾼의 아들로 남부러울 것 없지만, 아들과 그 어머니는 출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많은 재산을 정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몽땅 나누어 주고 속가에는 그 무엇도 하나 남겨놓지 않고 아들과 어머니는 제 갈 길을 갔다. 아들은 비구의 길로, 어머니는 비구니의 길로 나선 것이다.

대구에서 방직공장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렸고 소년은 자신의 인생 또한 행복이라는 단어만이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급성폐렴으로 인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그 많은 재산과 사업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했던 어머니는 힘겨워했다. 그때는 해방직후라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참으로 사회가 혼란할 때였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하룻밤 사이에 지주(地主)가 되어 버린 16살의 소년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급기야는 집을 나와 몸을 피해야만 했다. 할머니의 주선으로 지리산 쌍계사로 갔다. 소년은 지리산 쌍계사에서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느꼈고 출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평소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세상에 대해 애착이 없으니 같이 출가하자고 뜻을 밝혔다. 이것이 대정 스님의 출가동기이다.

대정 스님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여 동양고전과 유불선(儒佛仙)에 관한 책들을 주로 읽었으며, 사색하기를 좋아하였다. 급변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독서와 사색이 출가를 결정하는데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였다.

대정 스님은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 16살에 출가를 결정하여 불문에 들었지만, 그러한 선택에 대해 한 번도 후회를 해 본적이 없다면서 부처님의 출현을 두고 ‘인류의 정신혁명’이라 일컬었다.

“부처님의 출현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올바른 이정표가 지정되었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교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실천과 여법한 수행을 한다면 누구라도 도를 이루어서 부처님이 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내리신 가장 값진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 스님은 백양사에 주석하셨던 금타 선사로부터 ‘이뭣고’라는 화두를 받고 본격적인 참선을 시작하였다. 모악산에 들어가 3평짜리 흙집을 지었다. 나무와 흙으로 얼기설기 꾸며 방과 부엌을 만들었다. 그해 겨울은 참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생식을 하면서 차오르는 눈을 치우고 오롯이 화두만을 잡았다.

“그때 매일 산새가 나타나 밥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가 하면 산이 깊어서인지 매일 밤 호랑이가 나타나 집을 한 바퀴 돌고는 가곤했어요. 발자국만 남기고 가는 호랑이가 두렵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신장노릇을 해 준다고 여겼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몸이 축나거나 쇠약해지지도 않았으며 정신은 거울과 같이 맑아짐을 느꼈다. “화두가 절정에 오르면 잠이 깊이 들어도 화두가 역력하게 이어졌으며, 화두삼매에 빠져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였다”고 스님은 회상했다.

대정 스님은 모악산이 좋아 3년 넘게 그곳에서 토굴생활을 하였으며 29살에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흙집을 짓고 토굴생활을 했다. 먹는 것이라고 해봐야 쌀과 보리와 솔잎으로 만든 가루가 전부였다. 그때는 산에 들어가면 신성함이 절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산이 오염되어 신성함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토굴생활 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 했다.

“남전 스님은 평상심이 도(道)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도라는 것입니다. 도는 우리를 벗어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비켜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 그대로인 셈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중생이고, 바로 알게 되면 그대로 부처가 됩니다. 중생이라는 텃밭이 있기 때문에 성불이 가능한 것이며, 선이라는 좋은 정법인 씨앗이 와서 성불하는 것입니다.”

대정 스님은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결제와 해제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오롯이 참선에만 전념할 수가 없어 산중에서 혼자 토굴생활을 하였다. 사형인 성철 스님이 백련암에 계실 때 해인사 선방에서 1년을 지냈고 선암사 등 여러 제방에서 10년 동안 수행한 그 기간을 빼고는, 19살때 모악산에서 시작한 토굴생활이 59세까지 이어졌다.

화두가 절정에 오르면 잠이들어도 역력해져

선을 이루면 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화두를 잊지 않으면 근본 무명 타파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토굴에서 수십 년 넘게 수행정진해 오신 대정 스님을 어디에 비할 수 있으랴 싶었다. 달마 스님은 9년 동안 소림사에서 면벽하였고, 중국의 장경 스님은 20년의 세월동안 일곱 개의 좌복에 구멍이 날 정도였고, 임제 스님은 20년 동안 하산하지 않고 수행했다. 대정 스님 또한 수행하다 죽는다면 그것을 큰 복으로 여겼을 만큼 목숨 걸고 수행했다. 오랫동안의 묵언으로 인해 대정 스님은 목소리를 잃어버렸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심한 허스키한 목소리이다.

대정 스님은 지리산에서 공부할 때 ‘인욕정진 퇴백마 용맹무퇴성입지(忍辱精進退白魔 勇猛無退成立志)라, 인욕과 부지런함은 백 가지 악마를 물리치고 용맹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품은 뜻을 크게 이루리라’는 글귀를 좌우명으로 삼아 공부했다. “수행자가 입고 있는 가사와 장삼은 부처님의 고행과 인내를 쫘저히 닮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한시도 화두를 놓친 적이 없었으며, 뼈를 깎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서른일곱 살에 지은 게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재하처 견문시도(道在何處 見聞是道)/ 요연즉성 하처갱구(了然卽成 何處更求)/

은현동시 여시묘각(隱現同時 如是妙覺)/ 수인아문 오답일소(誰人我問 吾答一笑)

도는 어느 곳에 있는고/ 보고 듣는 것이 그대로가 도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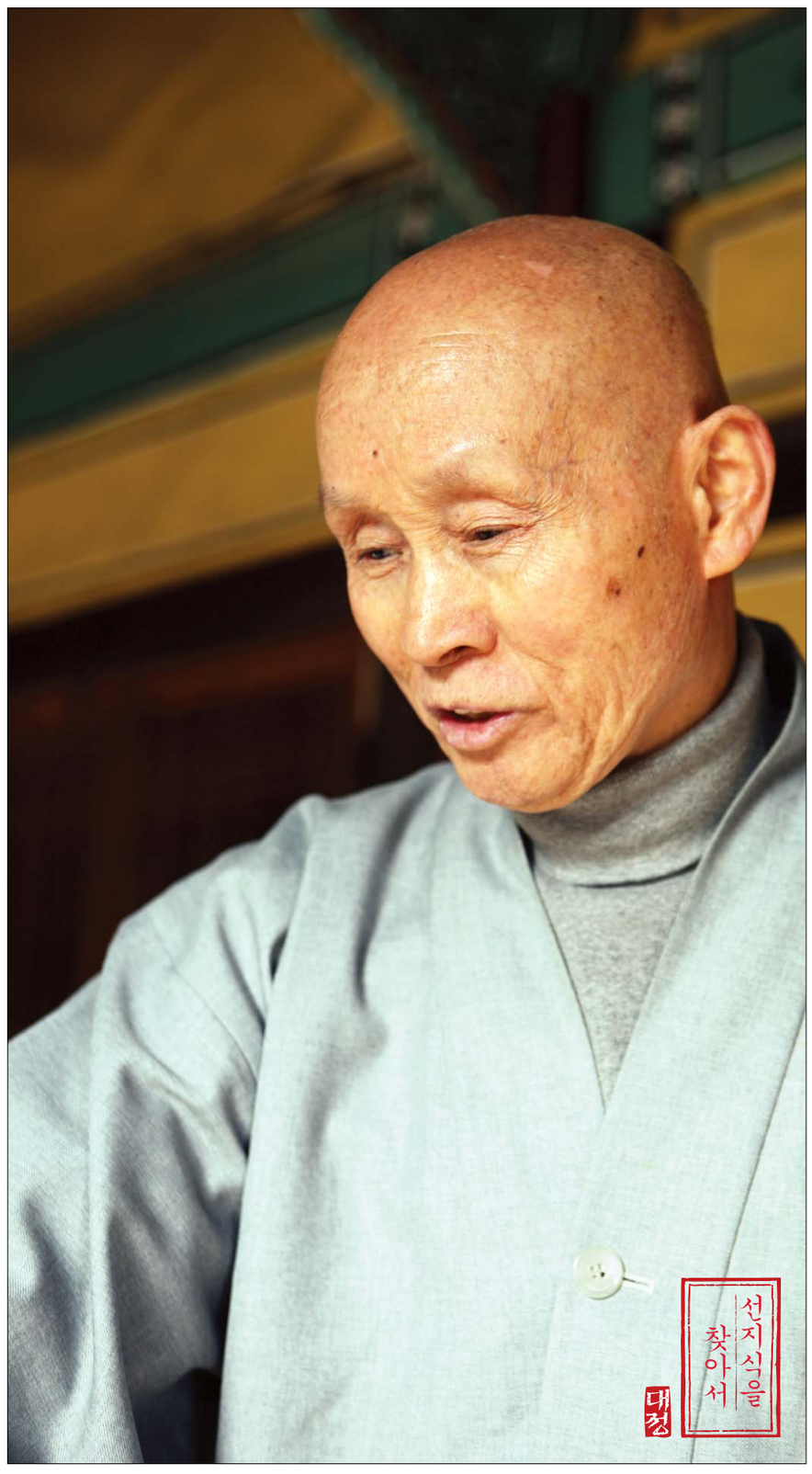
알고 보니 그대로 이미 갖추어져 있더라./ 어느 곳에 다시 도를 구할 것인가?

숨음과 나타남이 때가 같아/ 이것이 바로 묘한 깨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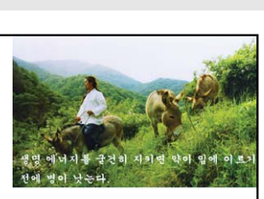
누가 나에게 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한 번 웃음으로 그 답을 대신 하겠노라.

‘한 번 웃음으로 답을 대신하겠다’는 구절이 좋아 무슨 의미인지를 물었다.

“선은 말과 생각과 뜻으로도 헤아릴 수 없어요. 선은 말과 마음의 길까지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선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대중 앞에 말없이 꽃을 들어 보이신 격외선지 아닙니까? 한 송이 연꽃을 보고 가섭존자는 이심전심으로 법통을 이어받았잖아요. 선은 부처님께서 최후 마지막에 내어 놓으신 선의 진면목으로 청정여래선입니다. 선과 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을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이룩하면 도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스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법을 만났으니 그런 큰 복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 마음은 절대평등하고 이것은 어떠한 장애와 걸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 자체 그대로가 자재무애하고 상주불생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대로 미혹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절대평등인데 마음을 모르면 그대로 불평등이 되어 버립니다. 불평등이 되면 이로 인해서 모든 갈등이 생겨나요. 그리고 업에 끄달려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생육도하게 됩니다. 영원불멸의 생명체인 마음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 의심해 나가는 것이 화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뭣고’를 계속 의심해가면서 화두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선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의심인데 의심은 의심으로 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의심을 간절히 해나가다 보면 화두가 익어 번뇌와 망상이 자연히 소멸된단다. 천만 가지 의심이 한 의심으로 의단이 되어 한 의심만 풀리면 천만가지 의심은 한꺼번에 풀려서 일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화두참선이란다.

“스스로 화두를 잊지 않으면 계정혜 삼학이 되니 자연 탐진치(貪瞋癡) 삼독이 없어지고 우리의 근본 무명이 타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그동안 그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업이 너무 중해 화두 참선을 하려고는 하는데 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다보면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확철대오하게 됩니다. 남이 받지 못한 복을 받자면 남이 하지 못할 일을 능히 해내야 합니다.”

대정 스님은 60년 넘는 세월동안 화두참선을 하였기에, 그 화두 참선이 너무나 좋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곡히 권하며, 초심자에게는 참선의 방법을 세세하게 일러주신다.

“의심은 탐구심, 정신집중을 말합니다. 의심은 생각도 아니고 뜻도 아니며, 오직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탐구심에서만이 우리의 근본 참모습 본래면목이 나오게 됩니다. 본래면목이란 바로 참마음이요 부처님 성품입니다. 부처님 성품은 큰 도로 인해 나오고 이 도는 선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어요. 부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밖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불은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이 전부 소멸되는 것입니다.”

대정 스님께서는 63년간 화두참선을 하셨지만, 교학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을 강조하신다.

“교(敎)하는 사람이 선을 알지 못하면 교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한 사람이 교를 알지 못하면 교는 그만두고 선도 알지 못합니다. 선과 교는 원래 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은 선이고 교는 교인 것이지, 선이 교가 될 수 없고 교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일체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근본바탕입니다. 마음 밖에 선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마음에서만이 마음 문제가 해결되지 마음 밖에서 마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계속해 들고 나가면 의심이 나고 드디어 나와 의심이 둘이 아니고 통일이 됩니다.”

금정산 범어사에 주석하신지도 20년의 세월이 넘는다. 그 동안 대중들이 두 번이나 범어사 주지 소임을 맡아주기를 간청했지만, 대정 스님은 이미 16살 때 제행무상을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다.

올해로 꼭 한 해가 빠지는 팔십이신 대정 스님은 오랜 토굴생활의 습도 있지만, 내 심부름은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기에 청소와 빨래를 몸소 하신다. 그리고 하루 두 번 대중들과 함께 공양을 하고 점심공양은 스님의 거처인 휴휴정사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찬물 한 바가지로 채운다. ‘검박하다’ 하는 말조차도 사치가 되어 버리는 대정 스님의 삶에 대해 찬탄을 하였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을 닮고 싶어 출가를 했으니 부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답하신다. 무욕으로 일관되게 살아오신 대정 스님께 인간의 욕망에 대해 질문을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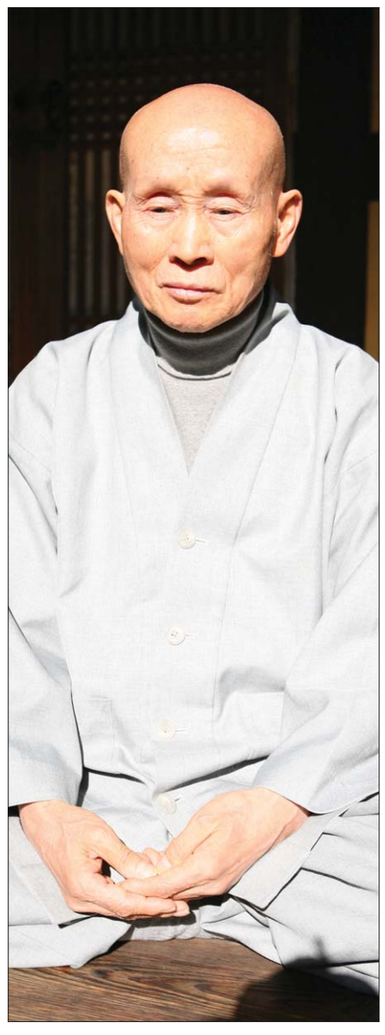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심은 욕심인데 욕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도 과식하면 음식이 아니라 독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듯이, 모든 것이 지나치면 독이 되어버립니다. 남을 속이고 살생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嗔心)이고 이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이 탐심으로 인해서 진심이 나오고 진심으로 인해서 치심이 나오게 됩니다. 계정혜를 지키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은 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께 새해에는 어떻게 살면 좋을지 가르침을 구했다.

“과거 · 현재 · 미래는 중생의 망념에 불과하며 실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새해니 묵은해니 구분하지 말고 항상 깨끗한 생각과 고요한 마음, 맑은 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 살려나가세요. 그러면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번뇌와 망상이 차츰 사라져 자신의 고뇌에서 해방이 됩니다. 마음속에 상대성이 사라지면 분별심이 작용하지 않으니 그대로 행복입니다.”

대정 스님처럼 점심 한끼를 때울 요량으로 한 바가지의 물을 마셔보았다. 금정산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차가웠지만 아주 달았다. 감로수와도 같은 대정 스님의 법문을 듣고 산문을 나서니 세상이 왜 그리도 번잡하게만 느껴지는지….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대정 스님은

1946년 대구 경북중학교 재학 중 지리산 쌍계사로 입산. 1950년부터 59년까지 모악산에서 토굴생활을 하면서 장좌불와.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 수지. 1960년부터 1967년까지 지리산에서 토굴을 짓고 용맹정진. 1967년부터 70년까지 범어사, 해인사, 마곡사, 선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 1970년부터 79년까지 지리산에서 생식과 일종식으로 수행정진. 1979년 이후부터는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정진하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5〉 보문사 송은영 큰스님

서울 보문동에 소재한 보문사는 속칭 탑골승방으로 고려 때 담진 국사가 처음 지어 비구니스님들을 거처하게 한 뒤에 조선조 묘첨 스님이 중건하고, 보찬 · 유봉 스님이 대웅전을 짓고, 정운 스님이 좌우 양당을 개축하여 은영 스님의 은사 긍탄스님께 넘겨주었다. 긍탄 스님은 복형 스님께 물려주니, 복형 스님은 다시 긍탄 스님의 제자 은영 스님께 주지직을 물려주어 삼성각, 선불장, 산령각, 극락전, 호지문, 시왕전, 보광전, 석굴암 등을 신축하여 명실 공히 서울에서는 제일가는 여승방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같은 불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눈물 나는 역사를 안고 있다.

보문종 종정 천혜안 스님께서 말씀하였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부였습니다. 아버지 송헌대 씨가 동안 똥 · 오줌을 받아내던 아버지가 갑자기 회복되어 하는 수 없이 은영이를 출가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영 스님이 출가하게 된 동기이다. 동화사 강원에서 겨우 〈초발심자경문〉을 마치고 은사따라 서울로 올라온 은영 스님은 어린 나이에 3년 동안 탁발하여 대중 공양미를 대고 불량답(佛糧畓) 아홉 마지기를 장만했



은 1000원이 넘으니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버지 100일재를 지내러 왔던 지혜룡 씨가 거금 500원을 보태주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량문 속에서 고려 때 탑골승방 역사가 나오니 탑공승방은 한 비구니 사찰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인 문화재인 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은영 스님은 이때부터 당신이 할 일이 부처님과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였다고 한다. 되도록 새로 들어온 아이들에게 자신처럼 천대받지 않고 무식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문학원을 개설해 공부시켰는데, 당시 불교계 안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영명스님과 홍영진 · 이종욱 · 김태흡 스님 등을 강사로 모셨다.

6 · 25사변 후에는 범패의식을 공부한 학인들이 연이어 나와 재 · 불공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여도 잘 되었고, 스님 수가 불어

출생부터 ‘출가인연’…불사 · 포교에 한평생
세계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 설립의 주춧돌 역할

꿈을 꾸니 비호리 뒷산에 큰 황소가 있어 집안으로 끌고 왔는데, 마구간에 매어 놓고 보니 황소가 아니라 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 안봉화 보살님이 꿈을 꾸니 그 황소가 집에 있지 않고 어느새 절에 가서 절농사를 짓고 있어, 아무래도 내 새끼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였답니다. 과연 생후 얼마 있다가 아버지께서 대덕장으로 소 팔러 나갔다가 일본 헌병들에게 독립지사로 오인되어 죽도록 맞고 소판 돈까지 빼앗기고 돌아오니, 가정이 일시에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동학사에 기도하며, ‘부처님, 아버지만 낫게 해주시면 아이 하나를 부처님께 바쳐 시봉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3년 8개월

다. 그때 은사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금강산 장안사로 떠났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절 살림을 할까 걱정하던 차에 고향의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명인 사제와 함께 밥을 해 약수터에 올라오는 사람들과 활터 손님들까지 밥을 해먹이니 절 밥이 맛이 있다고 오는 사람마다 불전을 놓고 불교에 대해 물어서 저절로 포교하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숭인동 어떤 보살님이, “나는 집에 있어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외롭게 지내니 어머니와 함께 밥보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여 좋다고 하니 돈 300원을 가지고 와 요사채를 짓고, 법당불사를 준비하였다. 3년 동안 고생하여 겨우 돈 200원을 준비하였는데, 절 지을 돈

나는 것처럼 신도 수도 불어나 탑골승방을 거쳐 간 수좌가 무려 300여명을 넘었고, 거기서 길러진 고아들 또한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버려진 사람이나 맡겨진 사람, 전쟁고아나 중병환자들 까지도 똑같이 길러서 내전(內典)을 마치면 대학에 보내고, 나아가서는 외국 유학까지도 보내 굴지의 종단으로 발전하니 지금 와서는 세계 유일의 여성불교종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덕암 스님이 스님 49재 때 읊었다.

“향내는 향로를 감돌고/ 촛불은 어두움을 밝히는데/ 은영 스님은 보문에 잠들었으니/ 묻노라 은영이여/ 동서남북, 상하 문 가운데/ 어떤 문이 진짜 문인가!”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한국불교대승조계종 총무원
승원사
주지 법광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전화 055)338-4008 / 010-4457-6556

한국불교대승조계종 경남서교구종무원
자비사
주지 지정
신도일동
경남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60번지
전화 055)692-6311

주지스님께 권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아래 태아영가를 정성과 사랑으로 품에 안고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장보살님(소불)을 법당에 모셔두고 낙태영가 천도대신 지장보살님을 한 佛씩 모시도록 권장하시면 쉽게 동참하시여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불크기 약7치 제조 국산 / 디자인 등록 출원
문의전화
051)336-9922 / H.P 011-567-2626
부산 북구 법정사 주지 합장
계좌번호 : 농 협 177467-51-075633 법정사
새마을 1615-09-045513-6 법정사

하늘의 기운, 신의 숨결, 조상의 지혜
천년 역사의 전통
槐괴 黃황 紙지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제품 괴황지는 홰나무(일명 귀신나무)의 꽃과 열매(콩같은것)을 당년 7월7석(전삼일, 후삼일에) 소승이 직접 채취(강원도 영월)하여 그늘에 잘 말린후, 동지날(전삼일, 후삼일)에 즙을 내어 그물로 9번 순수 한지에 물을들여 건조시키는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작업시에 발생하는 역한 냄새와 건조시키는 과정때문에 일반인들의 가정에서는 제작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대용품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치자물들인 창호지로 그 용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승은 옛 선사님의 비법 그대로 순수 닥나무로 수작업한 전주한지를 엄선, 정확히 9번 물들여 건조하였음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함장하며,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제작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시어 미리 주문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주문처: 전북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 589번지 몽련암
관봉 함장 (063)353-1232 / 010-6229-0108
농협: 507079-51-012924(예금주:이창주)
E-mail: m3531232@hanmail.net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구정연휴로 인해 1월달만 광주 1월 15일,부산 1월 18일로 변경됩니다.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7>

(修習止觀坐禪法要)

제9장 치병(治病) ①

자리이타 성취하려면 병의 근원 알아야

行者安心修道 或四大有病 因今用觀心息 鼓擊發動本病 或時不能善調適身心息三事內外有所違犯 故有病患 夫坐禪之法 若能用心者 則四百四病自然除差 若用心失所 則四百四病因之發生 是故若自行化他 應當善識病源 善知坐中內心治病方法 一旦動病 非惟行道有障 則大命虧失

지관법문 총 열 장중에서 아홉 번째로 병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밝히기로 한다.

중생들의 오온가운데 색신은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졌다. 몸이 있으면 병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마치 네 마리의 뱀이 성질이 서로 다르고 물과 불이 서로가 상극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방편으로 보여주는 병과 실제로 생긴 병은 다르다.

실제로 일어나는 병은 수행과정에서 생긴 병이고, 방편으로 나타내는 병은 깨달은 뒤에 중생교화를 위해 보여주는 병이다.

방편으로 나타내는 병은 유마거사가 병을 핑계 삼아 비하르에 누워있으면서 몸의 병으로서 범부들을 훈계하고 소승을 물리치고 대승을 꾸짖었던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상주하는 법신의 이치를 열반경에서 설한 것도 병을 의지해 설법한 경우이다. 이 모두는 방편으로 시현한 병 가운데서 행한 법문이다.

이와 같은 방편의 병은 지금 다스릴 바가 아니고 현재 다스려야 할 병은 과거 업의 과보로 태어난 몸의 병이다.

업으로 받은 몸의 병은 지수화풍 사대가 마치 네 마리의 뱀이 움직이듯 서로가 침해하는 데서 일어난 것이다. 수행인이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면 선정을 닦는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장기간 몸에서 병이 떨어지지 않으면 닦아야 할 복을 잃고 가이없는 죄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강을 건너는 도구를 깨뜨리고 교량마저 철거한다면 정념을 잃는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의미에 해당된다.

대체로 병이 생기면 계율이 무너지는데 이는 강을 건너는 도구를 파괴하는 것과 같고, 또 선정마저도 파괴되는데 이는 강을 건너는 교량을 철거해버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견으로 전도된 마음을 일으켜 피고름과 악취가 나는 몸을 집착하고 아끼면서 청정한 법신을 파괴하므로 정념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반드시 병마를 대치해야만 한다. 알아야만 할 것은 법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조건을 의지해야만 일어난다는 점이다.

병마는 아무런 인연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수행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수도를 하다가 지수화풍 사대가 조화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음식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선정가운데서 몸과 마음과 호흡 등 세 가지를 알맞게 조절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을 조심스럽게 간직하지 못하여 귀신이 그 틈을 엿보아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마군의 장난으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전생 업보로 갖가지 병환이 일어나기도 한다.

병환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인연 따라서 일어나
지수화풍중 일대만 조화못해도 백한가지 병생겨

모든 병환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마음을 잘 쓰느냐 잘못 쓰느냐에 따라서 병이 있고 없는 것이 구별된다.

좌선수행을 할 때 그 요점은 마음 씀씀이에 있다. 마음을 잘 사용하면 한량없는 이익을 얻고, 반대로 마음을 잘못 사용하면 허다한 허물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가운데 일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해도 백 한 가지 병이 생긴다. 따라서 지수화풍 사대가 모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사백 네 가지 병이 일어나게 된다.

마음 씀씀이를 조심한다면 모든 병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겠지만 만일 마음 씀씀이가 옳지 못하면 일체 병환이 이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리이타의 덕과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공덕을 성취하려 한다면 반드시 병의 근원을 잘 알아야만 한다.

또 모름지기 좌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병을 알고 그 병에 알맞은 약을 처방해야만이 병에 따라서 약을 투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홀로 심산유곡 암자에 거처하면서 도를 닦다가 하루아침에 병이 일어났는데도 병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면 도업을 이루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태로워 끝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사소한 병이 있을 때는 꼭 약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병이 많은 이유는 약을 많이 먹기 때문이지만 궁색한 사람이 병이 적은 이유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자기 몸속에 병에 항거할 면역력이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今明治病法中有二意 一明病發相 二明治病方法 一明病發相者 病發雖復多途 略出不過二種 一者四大增損病相 若地大增者 則腫結沈重 身體枯瘠 如是等百一患生 若水大增者 則痰陰脹滿 食飮不消 腹病下痢等百一患生 若火大增者 卽煎寒壯熱 支節皆痛 口氣大小 便痢不通等百一患生 若風大增者 則身體虛懸 戰掉疼痛 肺悶脹氣 嘔逆氣急 如是等百一患生 故經云 一大不調 百一病起 四大不調 四百四病一時俱動 四大病發 各有相貌 當於坐時及夢中察之

여기서부터는 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문단으로 나누어서 해석하기로 한다.

첫 번째 지수화풍 사대가 어느 한 쪽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의 모습을 밝혀보기로 한다.

우리의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로 조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일대만이라도 그 세력이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감소한다면 바로 질병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사대가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사대 가운데서 지대의 세력이 나머지 삼대의 세력보다 증가하면 신체가 괴롭고 무거우며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척하게 말라 축 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것 등의 백 한 가지 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지대에서 일어난 병의 모습이다.

또 수대가 나머지 삼대보다 지나치게 증가하면 습담이 가득 차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복통을 일으키거나 설사를 하는 등 백 한 가지 병이 생기며, 화대의 세력이 증가하면 뜨거운 열 기운이 크게 뻗쳐 사지마디마디가 아프고 통증이 일어나고 입맛을 잃거나 대소변이 소통이 안 되는 등의 백 한 가지 병이 생기고, 풍대의 세력이 증가할 경우는 몸이 허공에 매달린 듯 떨리고 흔들리면서 통증을 일으키거나 폐가 답답하고 기운이 팽창하여 구역질이 나거나 기운이 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 등의 백 한 가지 병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말하기를 "사대 가운데 일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해도 백 한 가지 병이 일어나고 사대가 전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백 네 가지 병이 일시에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사대에서 일어난 병은 각자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으므로 마땅히 좌선할 때에나 꿈을 꿀 때에 그것을 잘 관찰해야만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6)세계와 인생은 유심연기(唯心緣起) ②

행위로 조작하는 세력은 그 근원이 미혹의 무명을 의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무명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몹시 불안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상사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갖가지 허망한 분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분별이 바로 '식'입니다.

'행'의 조작을 의지해서 일어난 '식'은 허망한 분별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완전한 생명체, 즉 일심진여의 한 덩어리에서 그것을 주관과 객관으로 이분화 시킵니다. 다시 말해 안으로는 자아라는 신심(身心)과 밖으로는 세계를 서로 다른 따로의 모습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별[識]을 의지해서 자아의 심신과 세계[名色]가 일어나게 됩니다.

'명색'은 근신과 세계를 말합니다. 분별식이 의지처가 되어 명색이 일어나면 안으로는 자기의 신심과 밖으로는 자신이외의 세계우주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따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명색이 의지처가 되어 육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육입은 육근 또는 육처입니다.

이는 분별된 외부세계로 인식주관이 추구하면서 그 대상을 집착으로 취하는 내적인 여섯 종류의 도구인 셈입니다. 안으로 신심과 밖으로 우주를 따로의 모습으로 분별했다면 외부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는 수단으로서의 도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집착에 의지해서 '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행'으로부터 '수'에 이르기까지 이들 현재오과는 욕망[愛]과 집착적인 추구[取]에 의해서 그 세력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증가한 세력을 종합해서 '유'라고 하였습니다.

'행'으로부터 '수'까지는 각자 특징이 다르게 작용하는 세력들이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와 개체적 물리존재[有]는 앞서의 현재오과의 활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측면에서만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를 의지해서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는 것은 거듭 재론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체득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십이인연의 역관, 즉 소급관찰에서 '무명'으로부터 '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결과인 '노사우비고뇌'가 소멸한다 하여 생멸유전문과 진여환멸문 가운데서 환멸의 인연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수행 방편을 시설해야만 무명 등의 생멸인연이 소멸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밝히려면 세간과 출세간의 인과논리가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으로 사제법문에 대해 서술하겠습니다.

■정리=張如舟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나비춤 : 오공양,유원숭,요잡작법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접수기간 : 상시모집
9.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운명을 바 꿔 주 는 "기도의 비밀"
한 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웨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기도의 비밀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평생의 길흉화복을 좌우합니다. 관음정사에 오시면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전통사찰 불사 대출
(기채승인부)
사찰 매매 잔금 대출
기타 대출
재무부인가 제 9-205호
▣ 문의전화 : 053)428-1133
▣ 전문상담 : 徐一永 전무
C.P 011-527-1037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대구시 중구 남산동 665번지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옥장 장주원' 展 광주시립미술관서 2월 22일까지

옥공예 50년 맥을 이어온 장인의 숨결







녹옥사귀해태향로(위).
백옥봉황연향로(아래).

"부드러운 옥(玉)의 성질은 끈기와 온유, 은은함, 인내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지요. 석기시대부터 애용된 옥은 한국역사와 함께 흘러온 기상의 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옥장인 보유자 16호, 1996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玉匠)으로 지정된 장주원 선생(73)은 2월 2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에서 '옥장 장주원' 展을 연다.

"다이아몬드가 광택을 내뿜는 적극적인 아름다움으로 빛을 반사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반면 옥은 빛을 내부로 향해 머금은 흡수로 우리의 미덕인 겸손에 비유됩니다."

서양인들이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보석이 다이아몬드라면, 동양에서 옥은 인간이 지닌 최상의 품성에 견주어지며 영험이 깃든 보배로운 약으로까지 인식돼 왔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옥이 한국 고유의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에게는 낯설다. 조선 시대 이후 양반집 규수의 장신구로만 인식돼 오면서 단순히 노리개, 비녀, 가락지 같은 소품 정도로만 옥의 활용이 머물고 있다.

장주원 선생은 전통 옥공예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오랜 끈기와 인내로 전통 옥공예의 맥을 잇고 재현하는데 한 평생을 바쳤다. 재래식 작업 과정을 고수하며 채석, 디자인, 성형, 구멍 뚫기, 홈파기 등의 세부조각과 광택 과정을 거쳐 절묘한 기술로 역사에 남을만한 걸작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의 작업은 공예를 넘어 예술로 인정받으며 단순히 전통과 기술의 전승 차원을 넘어 인간능력의 확장이라는 현대 예술로 평가받는다. 8000년 옥의 종주국을 자칭하는 중국에서 조차 터득하지 못한 환주(環周) 기법과 작품 '해태 자연석 이중 연결고리'에서 보여 지는 이중연결고리 기법 등이 그러하다.

"옥 자체가 지닌 성질로 인해 오랜 끈기를 요구받는 옥공예는 환영받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전통의 전승과 계승 발전을 위해서라도 혼신의 힘을 다했지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20여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장인 정신은 전시장의 70여 점 옥공예 작품이 증명한다. 옥의 장식성과 공예품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예술의 경지로 승화한 독보적인 창조성은 한국예술의 자부심이다. (062)510-0700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기도하는 여인의 '인생 드라마'

불자가수 유지나 새 음반 발표



'구름 도는 심산계곡 작은 암자에 백팔염주 돌려가며 기도하는 저 여인, 무슨 사연 저리 깊어 구곡간장 애태우며 기도하는 여인 백팔염주에 눈물 적실까.'

찬불가 가수로 활동 중인 가수 유지나 씨가 CD음반 '인생드라마'를 발매했다.

지난 해 히트곡 '쓰리랑'에 이어 흥겨운 노래를 담은 '쇼쇼쇼'와 동시 출반한 찬불 가요다.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명국환) 회원으로 10여 년간 활동해 온 그의 불심을 오롯이 담은 이번 음반은 서산마루 낙조와 같이 머무는 삶을 노래한 '윤회의 배'와 부모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부모은중'을 비롯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12곡이 수록됐다.

가연숙 기자

잊혀진 고구려 불교, 찬란한 베일 벗다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2009년 맞아 고구려실 개관



고구려불교의 생생한 삶의 현장이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고구려 문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이 되는 2009년을 맞아 고구려실을 개관했다.

지배층의 권위와 신분의 상징인 고구려 위세품을 전시한 '나라를 세우고 성을 쌓다', 삶의 영역 안에서 지배적인 힘과 권위를 죽음의 공간 속에 표현하려 했던 대형 무덤을 전시한 '고구려 무덤, 삶과 죽음의 경계', 당시 복잡한 동아시아 대결 구도 안에서 영역 확장을 활발히 전개해 나간 고구려 철갑기병(鐵甲騎兵) 유물을 전시한 '영토 확장, 대륙을 향하다', 한강 유역 이남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고구려 문화의 실체를 보여주는 '남진(南進), 아리수를 넘다', 고구려인의 마음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부처, 무수한 깨달음을 구하다'의 여섯 테마로 구성됐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안정 속에서 고구려 사회 운영에 중요한 축이 되었던 불교는 국가와 왕실의 후원 하에 적극적으로 보급되었다. 고구려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연가 7년명 금동불입상' '영강 7년명 금동광배' 등에 새겨진 명문들은 고구려 불교사상의 일면을 짐작하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구려 불상으로서 출토지가 가장 명확한 것으로 알려진 '원오리사지 소조불상(사진)' 300여점 중 일부가 새롭게 복원 전시된다.

1937년 평안남도 평원군 덕산면 원오리사지에서 출토된 소조불상군은 현재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불상은 거의 없고 표면에 채색한 흔적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다. 불상 204점, 보살상 108점으로 모두 312점의 불상 파편이 발굴됐다.

좌상과 입상의 2종류로 나누어지며 대좌와 불신(佛身)이 한 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 · 보살상은 거의 같은 양식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불 · 보살상은 누구나 도(道)를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사상에서 나온 천불로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좌상은 소발(素髮)의 머리 위에 높고 큼직한 육계가 얹혀 있고 얼굴은 둥글고 갸름한 편이며 반쯤 뜬 눈이나 미소를 띠고 있는 표정이 부드럽고 온화해 친근감을 준다. 두 손은 가슴 앞으로 올려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있는데 삼국시대 불상의 수인(手印)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 불 · 보살상에 나타나는 부드러운 형태미, 법의의 착의방식, 옷주름 표현 등을 통해 6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천불사상의 수용과정과 당시 불교신앙의 성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02)2077-9465

가연숙 기자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출강 및 통신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8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9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 · 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⑩ 윤삼촌네 밥이야기 1

병도 되고 약도 되는 '밥은 배움'

매주 금요일이면 나는 한 남자와 다섯 아줌마의 사랑스런 일당들을 만나러 일산에 간다. 호수공원이 내려다보이는 한 오피스텔에서 그들과 나누는 야단법석의 데이트는 요즘 내 삶의 활력소다. 여자들의 요란 벅적한 수다와 웃음에 파묻혀 행복에 겨운 청일점의 한 남자, 그를 나는 윤 삼촌이라 부른다. 여섯 여자들의 사부인 윤 삼촌은 구세군에서 목사님으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이력이 있지만, 삶의 어느 순간이 정신분석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강사로, 심리치료사로, 자유로운 삶의 수행자로 그를 이끌었다. 사람들과 어우렁더우렁 어우러진 속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치유 받으며, 자신의 앎을 공유하고 싶어 안달인 삼촌의 취미는 다름 아닌 '밥 짓기'. 강의도 강의지만 제자들을 위해 밥을 짓고, 음악과 수다가 버무려진 속에 머리 맞대고 밥을 먹는 것을 큰 낙으로 생각한다. 금요일의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기는 나 또한 마찬가지. 요즘은 부산에서 욕쟁이할머니로 통한다는 삼촌의 팔순노모가 보내준 김치 맛에 푹 빠졌다.



밥 먹는 낙(樂)도 인생의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우리의 만찬은 수업이 끝난 후에 치러진다. 말하자면 공부를 열심히 한 대가로 주어지는 착한 상과 같은 거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뇌의 구조다.

"뇌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대뇌와 감정의 영역인 대뇌변형계가 있고 소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뇌를 한번 그리면서 얘기해봅시다.

아는 것이나 말발로는 도올 선생 뺨치는 명강사인데, 윤 삼촌의 그림솜씨는 어째 영 어설프다. 뇌 모양새를 그리기가 무섭게 제자들의 야유가 쏟아진다. 하지만 삶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뇌의 구조로도 해석되는 건 놀랍고도 재밌는 이론이다. 뇌세포의 신경단위인 뉴론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즈음, "참, 밥솥 안쳐야된다 밥솥"하며 윤 삼촌의 발길이 잽싸게 부엌으로 향한다. 쌀은 진작에 씻어 밥솥에 담가놨으니 그새 적당히 불어 수업시간 3분의1 지점에 이르러 불을 댕기면 타이밍이 딱 맞는다. 밥솥을 불에 안치고 다시 칠판 앞으로 돌아온 삼촌, 이번에는 대뇌피질에는 150억 개, 소뇌에는 천억 개가 있다는 뉴론의 체계를 설명한다.

"인간은 인식의 이미지를 먹고사는 동물이라, 수많은 뉴론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부딪쳐서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게 디지털도 아닌 아날로그로 무한하게 일어나니, 인간은 그렇게 무한한 존재라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방구석에 앉아 달도 따서 데리고 논다니깐. 손끝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건, 저 밑에 있는 무의식의 기저를 바라보라는 얘기기도 하거든."

수행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한평생 인간의 뇌를 붙들고 연구한 서양학자들 또한 실로 대단한 수행자가 아닐런가. 생각이 이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푸쉬 하며 압력솥에서 기를 내뿜는 소리. "드디어 터졌네 터졌어"라며 삼촌의 날랜 발길이 다시 부엌으로 향하고, 부산한 사부의 따뜻한 액션에 제자들은 즐겁기만 하다. 밥을 푸기에 앞서 윤 삼촌네 밥은 쥔장의 성품만큼이나 별나다. 일단 메주콩서부터 강낭콩에 이르기까지 울긋불긋한 오만 콩에 땅콩, 잣, 호두 등의 견과와 팥, 대추, 밤, 심지어 육포까지 들어있다. 그야말로 밥 속에 삼라만상이 다 있다.

오늘은 부산에서 올라온 욕쟁이할머니의 김치가 더욱 맛이 들어, 할매의 생명력 넘치는 욕의 기운까지 뱃속에서 팔팔하게 살아 날뛰는 듯하다. 바리톤의 힘찬 노랫가락과 정감 넘치는 수다 속에, 제자사랑이 듬뿍 담긴 밥과 팔순노모의 기운찬 김치의 기운이 몸 안에서 아우러져 생동하니, 이참에 공부한 내용을 '다부지게' 써먹어보겠다. 우선 대뇌변형계에서 일어났을 '기똥차게 맛있다'는 감정의 원인이 소뇌의 실천과정으로 대뇌에 인지됐을 것이고, 대뇌와 소뇌의 뉴론에 붙어있는 수십억 개의 축색돌기와 수상돌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을 쏟아내면서 밥한 숟가락을 떠 넣을 때마다 크리스마스트리의 전구마냥 반짝반짝 빛을 내며 시냅스가 뙇을 터. 그러한 구조적 원리를 따져보며 밥을 먹는 소감이란, 역시 알면 병이요 약이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⑫



'기' 보해주는 효능 으뜸 '동의보감'서 전해

물의 비중이 1이고 일반 목재의 비중이 0.46정도일 때 목재의 비중이 1이상이면 물에 가라앉게 되는데 보통 침향의 수지 함유량이 56%이상이면 물에 침수된다. 이것이 침수향(沈水香) 즉, 침향(沈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연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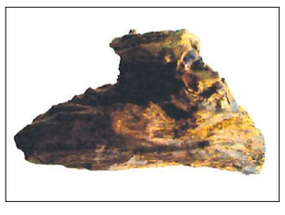
그러나 똑같이 300년간 숙성됐다 할지라도 수지의 무게비중이 높지 않은 침향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점이 수지의 향과 약성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 등급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 '침향은 기를 서로 통하게 해 기를 보하는 약재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라고 전한다.

침향은 향의 후각적인 효과 외에도 약리적인 효능이나 약성 면에 있어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물질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의학서와 연구서에 언급됐다.

침향 처방은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혈관계통, 기경(奇經)중 임맥(任脈), 독맥(督脈)까지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의학 자료 또한 방대해 연재 중간중간에 서로 관련 있는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약성으로 쓰이는 침향은 1~6등급 구분을 하는데 통상 베트남에서는 침향 등급 간의 숙성도를 50~100년으로 계산한다. 지구상에서 만여 종이 넘는 향 나는 물질 가운데 침향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 향 성분이 녹아 있다. 그 중에는 물에 희석됐을 때 나는 향도 있고 일반대기 중에 발산되는 향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발산되는 향도 온도에 따라 각기 다른데 이런 점을 종합해 모든 일반적인 향 성분이 날아가고 마지막으로 인체의 온도와 같은 36℃ 정도에서 발산되는 향만 남은 상태를 비로소 숙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숙성이 완료되는 시간을 통상 300년 이상으로 계산해 6등급 침향의 숙성도가 100~200년이라면 1등급의 숙성 시간은 보통 500년 이상으로 계산하게 된다.



약재로 사용하는 자연산 숙결 등급의 침향.

침향 선향을 만드는 주향재인 7~10등급 침향의 경우는 수지의 비중이 높다 해도, 일반적인 대기로 분출되는 향의 성분이 아직 남아 숙성이 덜된 상태다. 하지만 7등급의 경우에는 약성으로 쓰이는 등급에 버금갈 정도로 기가 나오고 있는 점이 특이하며 향기를 맡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기경을 보하는 약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이채롭다.

아쉬운 점은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국내외 침향 선향의 경우 등급 간의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인공 재배된 침향을 사용하거나 이물질을 혼합하기 때문에 침향 본연의 기운이 가려지는 경우도 많다.

(02)3663-6777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⑰ 뇌신경전달물질과 성격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뇌 신경물질 양에 따라 성격도 달라져

<임제록>에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간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설한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聖人)은 좋아하면서 범부(凡夫)를 미워한다면 생사바다에 떴다 잠겼다 할 것이다. 번뇌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마음이 없다면 얽매일 번뇌가 있겠는가. 분별하여 모양에 집착하느라 헛수고하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자연히 도(道)를 얻을 것이다."

이렇듯 선(禪)에서는 아예 마음자체에 대한 제거로 번뇌망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도(道)의 경지를 추구한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욕구, 활동성, 공격성, 걱정, 불안, 각성 등의 마음 상태를 좌우하고 있으며, 분비되는 그 양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의 성격과 성향 등을 좌우한다고 구별해 놓았다.

우리 성격을 결정짓는 네 가지 신경전달 물질

우리의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 중 도파민(dopamine),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가바(gaba), 세로토닌(serotonin)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화학물질들은 두뇌에서 분비되는 단순한 물질들이지만 사람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건강한 것은 뇌의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뇌의 균형이란 이 네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적당한 시기에 분비될 때 이루어지며 이때 우리는 '에지효과(edge effect)'를 경험한다고 한다. 즉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느냐, 가바가 더 많이 분비되느냐, 또는 세로토닌이나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냐에 따른 성격과 성향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네 가지 신경전달 물질에 의한 성격 분류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도파민 성격

– 의지가 강하고 이성적이며 지적 활동과 경쟁적인 운동을 좋아한다.

– 너무 과하면 충동적이 되기 쉽고, 중독, 비만,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 극도의 도파민 결핍은 심각한 우울증, 주의력 상실, 만성피로, 비만 등을 유발한다.

– 의사, 건축가, 과학자, 사령관, 발명가, 공학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 아세틸콜린 성격

– 판단이 빠르고, 창의적이며 사교적, 혁신적, 새로움에 대한 도전의식이 강하고, 직관적이다.

– 너무 과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한다. 더 심하면 자기 학대에 빠질 수 있다. 관절염, 골다공증, 동맥경화에 걸릴 수 있다.

– 결핍되면 치매나 기억력 상실을 유발한다.

– 명상, 요가지도자, 종교인, 예술가, 작가, 배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 가바 성격

–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 사교성과 신뢰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확성, 실용성, 객관성, 자신감 등이 있다.

– 과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데만 온 힘을 쏟고, 다른 사람의 판단만을 중요시하며, 따르게 될 수도 있다. 만성통증, 발작,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높다.

– 발한, 불안, 입건조, 근육 약화와 긴장, 기억력 감퇴, 만성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행정관, 회계사, 경비원, 신문기자, 주부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세로토닌 성격

– 여러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좋아하고 파티나 컴퓨터게임, 새로운 변화를 좋아한다.

– 너무 과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며, 집중을 못하고 우유부단해지고 수면 장애, 과식증, 거식증, 성중독 등에 걸릴 수 있다.

– 결핍되면 행복감이 결여되고 불행을 많이 느낀다.

– 운전사, 헤어디자이너, 바텐더, 조종사, 운동선수나 탐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시간에는 각 신경전달물질 부족에 의학 질병과 그 처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02)576-7575 (계속)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용성 학명 만공
한암 만암 만해 효봉
혜암 동산 경봉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인류 구할 책임감으로 집필



예수는 없다
공석하 지음 | 뿌리 펴냄 | 1만2000원

"부끄러운 고백부터 말한다면 종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5여 년 전의 일이다."

<예수는 없다>는 시인이자 교수인 저자 공석하의 고백으로 시작된다. 저자는 인류를 가장 큰 힘으로 지배한 <성경>이나 <코란> <불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문학을 한다고 40여 년 동안 목에 힘주고 다닌 것에 대해 일종의 회개하는 심정으로 경전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미망(迷妄)과 날조(捏造)의 거대한 숲 속에 인류가 몇 천년 간이나 묻혀서 살 수 있었는가 생각하며 울분을 터뜨린다.

이러한 연유로 저자는 인류를 미궁(迷宮)으로부터 구해줘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집필을 했다. 특히 그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반(反)기독교적 사상을 통해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철학의 창시자인 에머슨(1803~1882)의 시와, 카뮈(1913~1960)의 소설 <이방인>, 아인슈타인(1879~1955)의 상대성이론을 통해 기독교적 회의관을 표현한다.

저자는 "한국과 같이 광신도들이 넘쳐나는 종교 후진국에서 기독교에 저항한다는 것은 거의 무모한 자살행위에 속하는 짓거리"라며 "누구라도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다.

이나은 기자

우화를 통한 깨달음



틱낫한의 마음 한가운데 서서 : 마음이 따뜻해지는 열 편의 우화
틱낫한 지음 | 류가미 옮김
북북서 펴냄 | 1만1000원

베트남 출신의 스님 · 명상가 · 평화운동가이자 시인인 틱낫한 스님이 열 편의 순수하고 질박한 우화를 통해 깨달음에 대해 말한다. <틱낫한의 마음 한 가운데 서서>는 단순한 우화가 아닌 비유를 통해 틱낫한 스님이 펼쳤던 사회 · 평화운동 당시의 일들을 들려준다.

틱낫한 스님이 태어난 굴곡이 많은 베트남의 역사는 스님을 평범한 수도승으로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다.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른 뒤 1954년 베트남과 프랑스는 주네브 회의에서 정전 문제를 문의하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후 1960년 남베트남에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고딘 디엠(1901~1963)은 주네브 회의에서 합의된 총선 실시 조항을 거부하고, 베트남 전쟁을 시작한다. 이 전쟁은 틱낫한 스님을 사회운동가에서 평화운동가로 변신하게 만들었다.

고 딘 디엠 대통령은 가톨릭 교도였다. 그는 평화운동을 펼치는 승려들과 불교도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했다. 자신의 종교를 너무 사랑한 틱낫한 스님은 불교도를 탄압했던 고딘 디엠을 빗대어 '그 곳에 아름다운 눈이 있었네'를 썼다.

물론 틱낫한 스님과 그의 동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살 방법을 찾자는 것이 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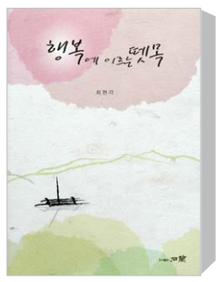
1967년, 반한불교대학 학생이면서 사회봉사청년회에서 일했던 낫치마이가 분신자살을 했다. 그는 자신을 태워 베트남의 평화를 가져오는 횃불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 책에 있는 '옛날 옛적 숲 속에서'는 틱낫한 스님이 자신의 제자 낫치마이를 기리기 위해 쓴 글이다. 또한 '소년은 산에서 내려왔다'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과 어떻게든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아보려는 평화운동가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용감하게 세상에 맞선 틱낫한 스님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웃느냐는 질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슬픔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우화집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

이나은 기자



행복에 이르는 뗏목 최현각 지음 | 석란 펴냄 1만3000원



禪, 안락한 삶 위한 도구

"스님, 선불교란 무엇입니까?"

"드럼통 속에서는 통을 굴릴 수가 없고 밖에 나와서 밀어야만 쉽게 통을 굴릴 수 있듯이 선 수행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위한 유일한 도구입니다."

한 불자의 질문에 한국 선학의 최고봉인 현각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이 답했다. 스님은 "분석심리학자 칼 융(1875~1961)은 '선(禪)은 동양의 정신 가운데서도 불교의 방대한 사상체계를 훌륭하게 수용해 핀 중국 정신의 가장 놀라운 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며 "선(禪)이란 동양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선불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행복에 이르는 뗏목>은 BBS 불교방송에서 불자들이 현각 스님에게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하고 답했던 내용을 보완해 펴낸 책이다. 경전, 교학, 한국불교, 중국불교, 수행법, 인간사 등 다양한 분야를 질의응답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경전-나의 설법을 뗏목 같이 여겨라 △교학-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국 고승-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모두가 꿈속의 일이로다 △중국 고승-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 △선과 수행법-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신앙생활-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분 입니까? △삶과 마음닦기-마음은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의 불교해설서가 중국스님들을 크게 다룬데 반해 한국스님들을 많이 다루었다.

또한 '마음과 행동이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일러주세요', '불보살의 가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지요?' 등 우리가 평소 궁금하거나 상담 받고 싶던 내용들에 대해 다루고 있어 의문 사항들을 해소 시켜준다.

불성(佛性)과 영혼(靈魂)에 대한 물음에 현각 스님은 "불성(佛性)이란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종자이며, 허공과 같습니다. 마당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면 장작더미는 다 타 없어져도 허공은 타지 않습니다. 허공은 불이 타기 전이나 타고 난 후에도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여여한 허공과 같이 불성 또한 불생불멸(不生不滅)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영혼에 대해 "영혼이란 모든 물체의 기(aura)로서 안과 둘레에 존재하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모든 물체를 제자리에 잡아 두는 것입니다. 영혼은 몸을 담는 용기이지, 몸이 영혼을 담는 용기나 주거지가 아닙니다"라고 답한다.

<행복에 이르는 뗏목>은 동국대 불교대학장, 한국 선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현각 스님이 수행과 연구의 결과물들을 초심의 불자들을 위해 자비롭게 펼친 문답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수행 통해 '참나'의 경지 드러낸 선어록



나: 영흥선사 365일 시방법공양
영흥 선사 지음 | 하늘북 펴냄 | 1만6000원



"그대가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구나."

'즉심시불'을 말한 마조 선사는 원주의 병문안에 이같이 답했다. 일면불의 수명은 1800세. 월면불은 하루를 산다. 부처는 영원과 순간을 초월한 존재인 까닭에 마조 스님의 '일면불 월면불'은 '즉심시불'과 함께 불생불멸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마음은 우리가 '참나'라고 여기는 무엇이다. <나: 영흥선사 365일 시방법공양>은 영흥 선사가 수행을 통해 '참나'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법어집이다.

선사는 '나'에 대해 "스스로 성품이 스스로 밝아서 스스로 법계를 스스로 이루고 스스로 세상을 스스로 열고서…"라고 표현했다.

무아(無我)이면서 대아(大我)의 삶을 강조한 선사의 법어는 스스로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 흡사 육조 대사의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을 연상케 한다. <금강경>에 "무아법에 통달한 사람이 진실로 보살이다(通達無我法者 眞是菩薩)"라고 했다. '나'라는 아상을 못 버린다면 범부지만 '나'라는 아(我)가 멸진(滅盡)돼 무아가 된 순간 공한 가운데 '참나'는 우주법계에 두루한 대아(大我)가 된다. 대아가 바로 '일면불 월면불'로 나투는 '참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스님은 21세에 망월사에서 춘성 선사의 벽력같은 할(喝)에 언하대오(言下大悟)하고, 24세에 처음 자수용삼매에 들었다. 45세에 서옹 대종사로부터 전법게(傳法偈)를 받은 스님은 진천 백곡 불뢰산 불뢰토굴에서 주석하며 인연 있는 수좌와 재가 수행자를 지도하며 보림중이다.

수행의 목적은 '참나'를 찾아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나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 오늘도 많은 수행자들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다. '참나'가 누구인지 모르고 '참나'와 대화한 적 없다면 영흥 선사가 본래의 '나'와 합일된 경지에서 전하는 '나'의 법문을 들어보자.

이나은 기자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서양철학 접목한 실상참구



하나의 꽃에 다섯 잎이 피어난 뜻은
석진오 지음 | 우리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하나의 꽃에 다섯 잎이 피어나니(一花開五葉) 자연히 열매를 이루리라(結果自然成).'

<경덕전등록> 권3에 수록된 달마 대사의 게송이다. 해석하자면 한 송이 꽃은 부처님을 위미하며 다섯 잎이 피어난 것은 중국에서 일으킨 선종(禪宗) 오가(五家)의 선풍(禪風)을 일컫는다. 다섯 장의 꽃잎이 열리는 것이 꽃이 피는 현상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결과라는 것은 작의(作意)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자연히 성립된다는 뜻이다.

현상이 있다면 결과는 자연히 수반된다는 때와 인연의 진리 규명에 대해 저자 진오 스님은 선종의 오가 선풍을 선사를 중심으로 아우른다. 달마 대사가 중국에 뿌린 불법의 씨앗이 이채로운 맛과 향을 지닌 다섯 가지 열매로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중국 선불교적인 담론으로 접근하며 불법의 본래 '일미(一味)'를 맛보인다.

<하나의 꽃에 다섯 잎이 피어난 뜻은>에 거론되는 중국 선종을 대표한 위앙종,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원류는 470년 중국 양나라 28대 조사인 달마 대사가 중국에 들어옴에 따라 부처님으로부터 마하가섭에게로 이어진 참다운 실상참구다.

이에 덧붙여 저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서양철학을 접목해 '진리는 아직 반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띄운다.

평소 삶이 도(道)라면 도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까? 위산 선사(771~853)는 평상의 일상행이 모든 것의 도라고 말한다. 반면 저자는 이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매달리게 하고 몰두하게 하는 궁극의 유전자는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를 묻는다.

<장작불> <삶의 소리> <사문의 노래> <오래된 미래> <향기나는 잡초> <새로운 문화유전자>의 편집 · 발행인이기도 한 저자는 <금강경과 함께 깨어나기> <4개 국어 금강경>을 비롯해 <강원스님들을 위한 금강경 강의본>과 <금강경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 <금강경> 관련 저서를 선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 선사상을 인물별로 재검토한 <정반대의 조화>와 <스님들이 보는 만화> 등 다양한 발상으로 불교에 접근해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4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	일아 역편	민족사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인과경	현담	선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삶과 영혼의 비밀	대승불교양우회	양우
9	간경수행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10	하늘이 감춘 땅	조현	한겨레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웃음보살 불등거사 <29>

구성 : 김흥인



왕의 거짓말 [백유경(百喩經)]



어떤 아이가 왕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자 왕은 돈 천 냥을 주기로 약속했다. 연주가 끝나고 아이가 왕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왕은 주지 않았다. "네가 아까 음악을 연주했지만 그것은 한 낱 내 귀만 즐겁게 했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것도 다만 네 귀를 즐겁게 한 것 뿐이다."
세상의 바보도 그와 같다. 인간이나 천상에서 조그만 즐거움을 받지만 그것은 실(實) 없고, 덧없으며 멸한다. 마치 저 빈 음악 소리와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서역의 바라문과 법을 견주다 도융각법(道融埆法)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도융각법(道融埆法)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구마라집의 제자 도융 스님이 오호십육국시대 후진 때 학문에 통달한 서역의 바라문과 법을 겨루어 불법을 지켜내는 장면을 시간대별로 표현한다. 수많은 학승들이 구마라집의 문하생으로 들어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후에 '관중사자(關中四子)' 혹은 '사성(四聖)'으로 칭송되는 축도생(竺道生), 승조(僧肇), 승예(僧叡), 도융(道融) 네 인물이 특출했다. 구마라집의 공사상은 이들 제자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에 널리 보급되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학문에 통달한 서역의 바라문이 장안에 들어와 오호십육국시대 후진의 황제 요흥에게 진나라 스님들과 법을 겨루어 그 우열에 따라 교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당시 관중의 스님들은 아무도 감히 그와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이에 구마라집이 도융 스님에게 말하였다. "이 외도의 총명함은 보통 사람과 달라서 말씨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위없는 대도를 갖고 있는데 그에게 굴복하게 된다면 자못 슬픈 일이다. 만약 외도들이 뜻을 얻게 한다면 법륜은 그 축이 꺾이게 되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보는 바로는 그와 대적할 사람은 그대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도융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도 재주와 힘은 그에게 모자람 없으나 다만 외도의 경서를 다 읽어보지 못한 것이 꺼림칙했다. 그리하여 은밀히 사람을 시켜 바라문이 지닌 경을 베껴오게 해 하루에 한 권씩 읽어 곧 외웠다. 그 후 날을 잡아 그와 논의하게 됐는데 요흥은 공경들과 함께 관중의 스님 대중들을 모이게 하니 사방 먼 곳의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이때 도융은 그 바라문과 견주어 서로 말을 주고받았는데 칼날 같은 말에 현오한 진리가 날아올라 상대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지였다. 이에 구마라집이 그를 조롱하여 말했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대진의 광범위한 학문을… 어찌 홀연히 그렇게 경솔하게 먼 곳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는가?" 그 바라문은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며 굴복하여 도융의 발아래에 정례를 올리고 몰래 숨어서 중국을 떠났다'는 이 사건을 통해 중국에서 상법시대 불교의 운이 도융 스님에 의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김밥 마는 여자

눈 내리는 수유중앙시장
가게마다 흰 김이 피어오르고
묽은 죽을 마시다 보았지, 김밥을 말다가
문득 김발에 묻은 밥알을 떼어 먹는 여자
끈적이는 생애의 죽간(竹簡)과
그 위에 찍힌 밥알 같은 방점들을,
저렇게 작은 뗏목이 싣고 나르는 어떤 가계(家系)를
한 모금 죽을 마시며 보았지
시큼한 단무지 시금치며
색색의 야채들을 밥알의 끈기로 붙들어놓고
붓꽃 같은 손이 열릴 때마다 필사되는
검은 두루마리, 이제는 하나가 된
그 단단한 밥알 속에서 피어 오르는
삼색의 꽃들을

장만호/ 시집 <무서운 속도>에서

2009년 대용맹정진 천궁회천법으로 죽음의 뿌리를 끊고 귀신포망을 넘어 육신의병, 정신의병, 잡신의 병을 태양 진광진법으로 최고 스승되는 천안통 및 동양철학 대법회

건강과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는 죽음의 뿌리를 끊는데 있느니라.

● 경신수행으로 귀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천문도통으로 죽음의 뿌리를 끊고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련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도통군자 비법으로 주인공 되시고 건강과 생명을 찾아 만사형통하는 최첨단 대용맹정진 수행법회에 도통하시고 죽지않는 법 전수 받으세요.

진인도통군자 제위 귀하를 천안통 대법회에 초대. 삼라만상 생명의 근본 태양진법인고로 자시와 오시에 점안하는 날이며 경신일, 혜안과 마음에 점안을 안하면 견성이나 득도가 되지 않아 한생을 고생만 하는 것이고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진 도법으로 만세에도 전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기축년 새해가 시작되는 해이므로 천용진인 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는 바 이오니 경신도법을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인 이소식을 도통군자 후학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지도는 움직이나 멸하지 않게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와 기국이나 인품이 아닌 자에게는 전하지 말지니라.** 특히 욕심과 빙의나 최면으로 사용하여 이득이나 취하는 자나 문중이나 도반과 의리를 배신하는 자나 특히 스승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삼가할지어다.

● 경신도통이란??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을 연장하는 비법으로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굿을 받아도 말문이 열리지 않고 신병으로 치료해도 안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만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것이고 도통군자는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어 일류 스승으로 만병을 다스리고 귀신잡신도 제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태양경신 기도 뿐인 것이다.

천궁 회천 경신도통이란 - 하늘땅에 가장 높은 대도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주문이며 종교가 이땅에 탄생 되기전 하늘 창조주께서 지구촌 인간들에게 가르쳤던 혈단법으로 도교,불교,천주교,기도교 등 도덕경,불경,성경 등 차원 높은 도법으로 다스렸던 것이고 지구촌 병은 모두 귀신장난과 동물,생물,식물,물고기 등의 빙의로 죽고 병마와 잡신 영혼을 물리칠 수 있는 주문인 것이며 경신기도인 것이다. 이 기도는 남여노소,학력,종교를 초월하여 경신일에 초능력을 얻어 만가지를 제도하는 가장 큰 대도법 경신주문인 것이다. 이 기도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지구촌 온난화로 각종 질병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천궁회천 경신 도통인 것이다.

동양철학특별강의 본 달마종단에서는 사주,성명,운명학에 뜻이 있는 스님, 비구, 비구니, 포교사, 정법사,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종교를 초월하고, 포교하고자 하신 사부대중들에게 새로운 후천달마도법으로 철학자 겸 소지자로 포교하고자 뜻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 교육기간 : 속성반. 3개월 (토,일요일 주야반)
주간-오후 3~5시 / 야간-오후 6~8시까지

천안통 수행은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과 건강을 연장하는 즉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다. 특히, 집전이나 수행자, 지도자들이 자기 제 육신하나 관리 못하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특별 천궁회천법 수행으로 견성도통하여 천하제일의 견성도통 심령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 의술도통으로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군자 지도자 되는 특별기도 주문으로 득도하소서.



일체고액과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재수대통 하는 달마 구입처 : 태일 02)821-6622/016-239-3110

◆천하대도 천안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항문과 배꼽, 두뇌로 숨을 쉬어 정신,심신,육신에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을 귀신과 잡신에 포망을 넘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육경신 수행입문으로 생명과 수명을 연장하는 도통군자 사명자 되시어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세우는 도통군자 되소서.

◆제2도장 태양의 집 -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명당 수행처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비산비야, 비승비속 출현 태양의 집

※ 특히,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을 연장하는 심신수련 천궁회천법으로 즉시 혜안을 열어 견성도통으로 부자로 잘 살수 있는 비법과 병 없이 수명장수 성취하고 천궁회천은 천장비법에 감추어진 비법인 것이다.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6-239-3110
세계불교달마종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9년 1월 14일(음, 12월 19일 수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9년 1월 15일(음, 12월 20일 목요일)(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대한역학풍수지리학술원 웅조달마 경신도통회 십팔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9기,10기 모집]

• 9기 : 1월 9일 금요일반 오후 1시 • 10기 : 1월 15일 목요일반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 책임 교육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9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승이 지면으로 나마 합장하고 큰절을 올립니다. 이제 최면교육은 유마최면 연구소라는 명성이 스님들 사이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더욱 분발하여 책임교육·평생교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승은 초심을 잃지 않고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자기 최면 완성반 회원모집 ★ 수련기간 : 20회 (1회 1박2일 기준) 인원 10명

개인 맞춤식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지도! 무의식에서 삼생의 時, 空을 넘나 드십시오!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9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CBC108.TV 연합불교방송
•법문, 법회 촬영 •방송
•홈페이지 제작/네트워크구성
•DVD 제작 •이미지 사진 촬영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 천도재 · 점안법요식
사찰노래자랑 · 음악회 기획
www.CBC108.co.kr
02)837-2003/011-356-3427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북한,조선족여성보호센터
㉿ 어려움에 처한
북한,조선족 여성
보살펴 드립니다
070-7769-8484
011-354-8484

역학 빙의 퇴마법전수
1.역학 실제감정위주로 1주일 비법전수
2.내용:명리학,주역,매화역수, 풍수지리,성명학
3.빙의 퇴마법 속성 비법전수
4.귀신들린병 퇴마 잘해드림
관음정사 도통스님
010-7443-3060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귀금명사
사업 · 급 매매
학업진로 · 귀신빙의
하루전 예약상담
농협 071-02-217956(이민혜)
010-4185-8853
010-2037-8857

퇴마심령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부인병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나쁜기운을 빼면 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30년 전통 역학 특별지도
① 특별개인지도 3명 선착순
② 재택수업 30명 장애불자무료
③ 백여권저서와 창교주.종정지도
④ 후계자. 종단임원.
불사인연 기다림
010-2693-7712 합장

큰 법력으로 사물 · 바라 · 살풀이 무,극락무,지전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불화 점안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도서관 추진위원회
010-7625-4455

총무원에서 비구니스님 모집 교육(45세 이하)
063)353-1232
010-9991-2671

불사금 발원
불사금으로 소승에게
1억원을 쾌척하실
불자님을 찾습니다
010-3116-199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유경험자 우대)
▷김해
010-4580-2323

비구니 노스님 모십니다
계룡산 묘광사에서 노후의 삶을 함께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산세좋고 물좋은 깨끗한 도량
일부 시주금을 받고 종신제
전화 041)857-5828
010-2303-7176
정현스님

행자 모집
스님되기를 원하는 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분
(30~40대 남자)
063)836-80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험자우대
보수지급
<충남예산경치좋은사찰>
011-9818-151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금 100만원)
▷울산
052)275-0829

조용한 산속암자에서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이나 행자 모십니다
017-569-3722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도심속사찰 함께 운영하실 보살님
영을 보시는분이나
철학,역학을 보시는분
051)513-7704

행자구함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비구니사찰)
▷포항
017-534-3750

새벽소리 茶
30여종의 한방원료로 발효 추출 과정을 거쳐 인체에너지 활성에 유용한 40여종의 성분을 뽑아내어 성분검사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풀잎뿌리식품 새벽소리茶
◆구입문의 041)673-8860
※판매금액은 불사금으로 사용합니다

역학공부
• 사주초급 : 1/7(수) 18:30 • 개강 : 정도형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수료증 자격증
사주 전과정 45만원.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02)2264-0258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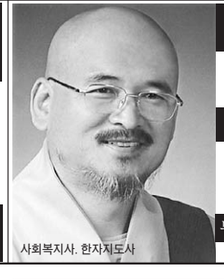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힘을 세게하는 초능력요법 탄생
• 세계 최고의 염력과 천기를 운용. 생명에너지 발생(31년간 연구)
• 정신병, 관절염, 당뇨, 위장병, 오십견, 신경통, 두통, 탈모증, 신병 (아주간단히치유 무료체험)
• 모든 운동선수(골프, 야구, 역도, 축구.....)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분 상담
• 병원치료로 효과가 없는분 무료상담
광명사 氣 연구소
054)974-4788 / 010-9554-5149

한국불교불광종 입종안내 행자모집
종단 민속철학협회소속없는 스님법사 보살 철학사입종환영
법당 철학신당에 빌어도 천문이 열리지 않아 신을 띨까 법당 폐문할까 고민하는분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 · 불명짓는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관음시식 · 구병시식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제작
(농협계좌) : 150022-51-167171(예금주 : 한국불교불광종)
국제역술협회입회환영주소 : 대구시 서구 내당 2,3동 923-142
전화 : 053-561-4440, 011-9422-1885 F.524-3644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어떠한 문제점도 28숙 기도로 다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육갑납음풀이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오행육갑 납음속에서 가장 단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갑납음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궁금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내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총판 : 법우당
02)994-4437~8

효사 육임 · CD 최종 완결판 출시 · 교환 안내
- 고도의 적중도와 효과성이 담보된 활인천역자 用 임상 활용 실기서

曉史六壬刪策 최종판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 1권,6권,60권 · A5,A4,A3中 헌택주문교환가능
◎ 시보 내정 형이상(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 침범여부 및 그 해소지침 연명(띠별)운세(귀인 직속 상매승진 병재 관재 빈궁 불성 산기자 여부) 1년신수 · 육임사주감정활용편(대 세 월 일운 및 병 증세, 육신길흉 사상 등) 배우자 궁합 등...
古今 제일 활인천역자용 임상 百世書!
- 원 터치 기능에 의한 기선제압이 제고된 상담용 CD 프로그램

曉史活人天役集 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출시중) 분개(分個) 판매 가능
◎「효사활인천역집」에 종합 장착된 내용 및 분개 판매 CD 프로그램들

■효사육임산책	CD	250만원	■효사숙사주	CD	70만원
■육임대계전서	CD	400만원	■성명학	CD	50만원
■육임1년신수비결	CD	100만원	■부적보감	CD	30만원
■육임길흉성부단정	CD	50만원	■동의보감	CD	1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CD	50만원	■매화역수	CD	50만원
■출산길일길시비법	CD	50만원	■월영도	CD	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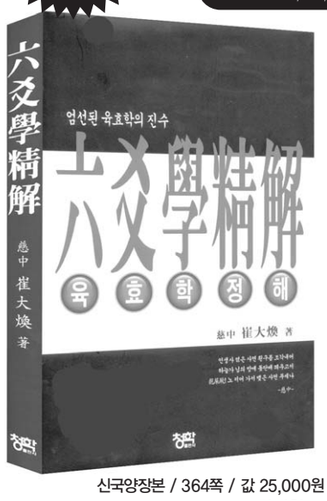
위 좌측 CD프로그램들은 최근 최정련판 서책활용위로도 주문 판매하고 있습니다.
- 증보 八版本 학습용 육임학 총서

曉史六壬講論 上下
정가 45만원 · 교환 35만원 · 上권 25만원 · 下권 25만원
◎ 上권 : 육임학습에 한함. 더이상의 의심이 없게함. 下권 : 임상실기서
- 인생의 命運 복분과 미래사가 한 눈에 보이도록 구성시킨 임상용

曉史六壬四柱鑑定法
정가 20만원 · 교환불가
◎ 본인 · 배우자 · 육친 · 대 · 세 · 월 · 일 운세 및 발현질병을 한 눈에 보고 판단하게 한 육임학에서만 가능한 육임 사주법! 학습 · 활용편으로 구성시켰습니다.

본회 02)833-8683 한국육임학회 부산 051)908-8683
총재 고복자 효사

六爻學精解
육효학정해
신출귀몰 화제의 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엄선된 육효학의 진수!
초보에서 완성까지!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목차부터 배우기 쉽도록 배열이 잘 되어 있으며 육효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본 학문을 연구하거나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국양장본 / 364쪽 / 값 25,000원
동방대학원대학교 육효학 전문가 과정 교수 최대환 저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육효학정해〉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청학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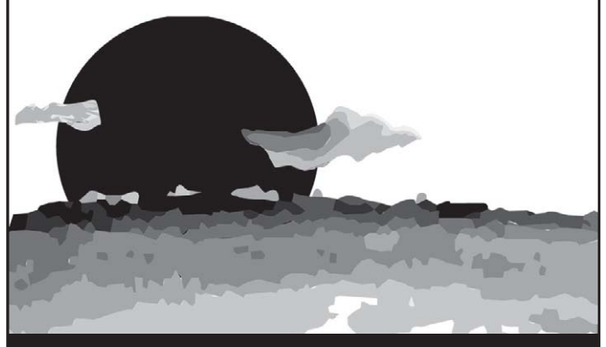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괜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울칠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 주문전화: 1688-1137 한국역학협회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룡척도 있습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경기	서울	서울
● 법당 : 24평	● 법당 : 28평	● 법당 요사 : 160평
● 요사 : 24평	● 요사 : 28평	● 부지 : 62평 ● 가액 : 15억
● 부지 : 560평	● 부지 : 167평	● 위치 : 인천지역
● 가액 : 6억	● 가액 : 10억	● 법당 요사 : 125평
		● 월:1억에 300만원
		● 양도가 : 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뉴타운 개발지역
● 가액 :9억

천왕봉 밑 마당 넓은 절
● 대지총평수 : 2100평
● 법당 약 30평, 요사채 방8
● 주지실 30평 전통기와양식
● 따뜻한 지리산 자락(정남향)
●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양도가 : 6억 5천만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 기슭
● 부지 : 약 2000평
● 법당 : 50.4㎡ ● 요사채 : 87.7㎡
● 납골당 : 99.0㎡ ● 지장전 : 53.0㎡
● 종교단체 납골당 허가 있음
● 가액 : 16억원
055)337-0111

사 찰 안 내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소재
● 부지 : 400평
● 법당,요사 : 컨테이너 2동 설치
● 가액 : 2억 2천만원
● 특징 : 토목공사 정기 상수도 공사 완공 1억 2천만원 소요됨 산밑에 위치한 명당터로 주지스님 신변관계로 급히 양도코자 합니다

● 위치 : 경남 창녕읍 소재
● 부지 : 800평(종교용지)
● 법당 30평(목조 단청)
● 요사 2동 80평
● 기타 : 종각, 석탑, 석등
● 가액 : 3억5천만원(2억까지 융자가능)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서울 010-5828-04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답사 후 결정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포교당 안내

● 위치: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 47평, 촌집
● 법당 :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보살,지장보살)
● 보증금 : 5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 1500만원
010-6485-820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임법당 1칸, 주방 1칸 방 3칸, 시설비 약간 답사 후 절충
● 전세 2,000만원
02)934-3352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얼음골 근교
● 평수 : 약 1만평
● 명산 계곡절경, 경관수려
● 가액 : 8억
010-4876-553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선바우산 소원바위 절터
● 평수 :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
● 대한민국 최대 와불의 산이 있고 산세 수려함
문의환영 011-822-0347
010-9258-3459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포교당 안내

● 위치 : 안양 중심지 (명학시장 2층) 안양역 명학역에서 도보10~15분거리
● 실평 약30여평 10년운영
● 전세3000만원 월세1000만원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010-5495-4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 총대지 약 407평
● 법당1, 요사채2, 주방 거실,화장실
● 가액 : 9천 8백만원
● 집기,비품필요하신분 별도 양동함 시설비 2천2백만원
011-439-905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전철역 인접 4차선 대로 2분. 산밑 앞이 트임
● 대지 350평, 임법당 50평
● 주차 여러대 완비. 텃밭 용이
● 시설비 없음
● 전세 : 5,000만원
● 위치 : 서울 은평구
● 전세 3천만원
011-9128-20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 평수 : 약50평
● 보증금 : 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 삼천만원
● 즉시법회 모든시설 완비
010-5364-003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 평수 : 약50평
● 보증금 : 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 삼천만원
● 즉시법회 모든시설 완비
010-5364-003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 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마당, 연못
● 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 1억5천만원가능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요망
010-3996-20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거리
● 평수 : 약7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0-6332-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양목역앞
● 평수 : 약45평(시설깨끗함)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2층건물중 2층(옥상사용)
● 아주 조용하고 생활하기 편리한곳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100만원(절충가능)
054)974-0307
017-217-1919

부 산 대 사 찰

● 한옥법당1동, 한옥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16억
051)862-0108
011-563-1545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이전관계로 양도함. 등기 337평
● 한옥토굴 27평 방 2개 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가액 : 7,500만원
010-8868-9407
054)673-6496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평수 56평, 법당, 방 3,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6739-6426

도 심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사찰(급) 안내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인천 제물포앞 4층 3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 850만원
010-4773-147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천안시 신부동
● 도로접. 2층 건물 중 2층 독채
● 평수 : 25평
● 삼존불, 보증금 100만원, 월20만
시설비 400만원(즉시법회가능)
010-9282-5885
010-7121-5885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 6천만원(절충 가능) 전세 및 대출 일부 후불 가능
011-9393-49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광안 4동 대로변 위치
● 4층 건물 7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시설비 절충
010-8606-7918
051)767-031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 스님이 외국불사관계로 운영하실 원력스님을 찾습니다
● 4층 건물 중 4층
● 석가모니불,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 관음소불 130불,법당외 방2개 주방1, 화장실 45평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0만원, 시설비 없음
● 인연있는 스님을 기다립니다
010-2304-2221

도심(빌딩)속 포교원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 72평
● 모든시설완벽
● 가액 : 1억 8천만원
055)274-4223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원남면 소재
● 평수 : 21,600평
● 계곡접, 남향위치 맑은물, 자연석 바위 즐비
● 가액 : 5억 3천만원
010-4511-7179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37-658번지 (인천 도심포교 최고요충지)
● 인연있는 스님기다립니다
● 임법당 20평,방大1,방小2개, 부엌, 화장실2,심야보일러실1개
● 사유지 600평 사용함
● 가액:1억5천만원
032)428-0523
011-891-29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760평(전세4억,매매절충)
● 법당(36평)산신, 용왕, 나한전
● 공원같은 사찰(차 50대정도 주차가능)
● 앞은 아파트, 뒤는 산
● 대지 233평 (전세1억7천만원, 매매절충)
● 법당(20평), 목조 산신등등
● 도로에서 50미터(동네가운데) 숲이둘러 쌓여있음
010-4741-344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2분거리
● 최근 개원, 사정상 급매
● 상가 3층 중 2층 50평
● 법당,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특A,냉난방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5천만원
010-3116-1992

사 찰 안 내

경기	서울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부지 : 370평	● 대지 : 90평
● 법당 : 10평	● 법당 : 18평
● 요사 : 5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 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용왕당 각 1평, 요사 3채 75평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11-9571-171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기장대변입구 주공 아파트앞 2층 건물중 2층 옥상사용
● 평수 : 35평 시설 A급,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7223-567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권 시내
● 평수 : 대지 400평 ● 내용 : 법당, 요사채, 창고
● 특이사항 : 주위가 대형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둘러쌓여 포교적지임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1-269-90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대지 120평
● 건물 임법당 20평, 후원채따로 있음 방4개 아미타삼존불. 집기일체양도
● 가액:1억1천만원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해룡사
● 주 지 : 보정(이옥례)
● 주 소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615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길을 묻는 이에게

제713호 현대불교
2009년 1월 7일(음력 12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자기 내면에다 몽땅 놓으세요! 몽땅 맡기고 사세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

문 인터넷을 통해 큰스님 법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저의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다 회사에서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까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사람이 좀 너그럽게 사세요. 모든 게 다 네 거 내 거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거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도 무에서 유로 나오는 거지,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해낸다 이런 뜻이죠. 이런 공부는 정말이지 하기 쉬우면서도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하다가 또 '이거 안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 하고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는 것도 네가 죽게 한다면 죽는 거고, 네가 형성 시켰으니까 살리는 것도 너고 죽이는 것도 너니까 너 알아서 해.' 그러면 책임이 있죠.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책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이름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서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하나하나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앞에 닥친 거는 뭐든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또 아픈 사람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금방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요. 응해 주는 화신으로 화해요. 화해서 응해 준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가는 이름이 보살이거든요, 마음에서 나가는 게. 그래서 법당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셔 놓고 양 옆에 문수보살 모셔 놓고 보현보살 모셔 놨죠, 세 분. 이렇게 모셔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한 분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문수고 법신이에요. 그리고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제각기 한 분이 다 부처 문수 보현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보에 귀의해라.' 이러는 거는 자삼보에 귀의해라. 자삼보에, 각자. 부처님의 이름을 따라다니거나 부처님의 형상을 따라다닌다면 그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백년 천년 만년이 가도 그 부처님의 진의를 모르고 자기의 진의를 모를 거예요. 애들이 좀 괴팍하고 안됐다 하더라도 걔한테 관해라, 뭐 어쩌라 이러면 오히려 더 안 듣게 되죠. 여기다 놓고 '그렇지 않게 너만이 할 수 있어. 주인공은 돌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 주인공이 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해서 차차로 착해지고 성숙해지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뒤바뀌죠. 사람을 고정되게 너는 요렇다 하고 못박질 마세요. 할 수도 있고 잘하던 사람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항상 없는 게 아니고요. 항상 바꿔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우리가 가난해 보지 않는다면 너그러워질 수가 없죠. 가난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진의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아파 보지 않는 사람은 남의 다리 아픈 것도 아픈가 보다 그렇게 하지 진실하게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지 않아요. 저 마음이 얼마나 귀찮고 괴로울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아파 보지 않아서도 그렇고 살아 보지 않아서도 그렇고 모두 해 보지 않던 거는 우리가 다 그렇죠.

저는요, 돌 하나를 봐도 스승으로 여기지 않았던 예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응, 이게 평등이구나. 어떤 파도가 치고 어떤 똥물, 구정물이 들어와도 바다는 바다로구나. 그런데 바람이 불어 파도를 일으키면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물이 바다가 아닐 수는 없거든요. 파도를 쳐도 바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으로서 한번 실천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그 진의를 하나하나 이렇게 체험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많이 체험을 해서 아주 슬기롭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안되는 원인이, 중학교 다녔으니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라 이런 뜻인데, 이게 되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 안되는 것도 진리다 이겁니다. 안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되는 걸 '안되는 것도 너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고 그냥 태평하게, 안되면 '안되는 것도 너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 하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깐 고마워.' 이러고 하면 그냥 알았으니깐 단박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오래 갑니다. 빨리 알아채면 그냥 빨리 확 돌아가 버리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벗어나야 우리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고 우리 생명체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조복을 받아야 내 마음대로 어디가 아프면 '아프게 해서 되니? 안되잖아!' 이러면 금방 그냥 돌아가고 이러죠.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거를 어떡하면 좋지?' 할 때 이 안의 의식들이요, 얼른 쉽게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다 나가서 해결하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다 어떻다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하소연을 다 들어 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도의 길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더딘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못사는 거 억울하다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잘못돼도 '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런 생각 마시고 그냥 그저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그냥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거 명심하세요.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으로서 개척을 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게 고인가요?

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게 고인가요? 한동안은 두통이 심해서 스님 말씀 믿고 관하였더니 통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서부터는 또 온 몸 이곳 저곳에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병원에서는 뚜렷한 병명 없이 신경성이라고만 하니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병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답 예전에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지만 절에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느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그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둘이 아니게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병도 놔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병이란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뚱이에는 이 부분 부분을 다 맡아서 하는 공장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오장 육부에 전부 공장장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모든 걸, 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는 다 주인공에다가 맡겨 놨을 때 그 공장장들은 자기한테다 열쇠를 맡기니까 자기네들이 도둑 안 맞고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맡긴단 말입니다. 다 맡겨 놓으니까 술술 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야, 이게 이렇게 병이 심하니까 오래 가겠지. 이게 한 달이 걸리겠지. 또는 두 달이 걸리겠지. 많이 좀 좋아지면 차차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왜 거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까? '어, 그냥 나을 거다.' 이렇게 믿어 버린다면 시간도 정망할 것도 없고 날짜도 정망할 것도 없고 달수도 정망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또한 여러분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

☞22면으로 계속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맞는음식.맞는과일.맞는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든다면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간 얼굴생김새.목소리 체형.살갗을 만져보고 연구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낸좋은분을 만나서 체질을 알고 병을 고쳐보세요.체질을 알아야 맞는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연구 · 노력하여 터득한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꾸어지는 행운이열립니다.지금바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혜를 드립니다

연락처 011-9373-3778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영남불교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

모 집 학 과	강 의 내 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화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중급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법 (대령,관욕,시식등)	수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전문반	짓소리,전통예능등 통합반	목	2시~5시	20명(1년)
작법무반	바라,나비,사찰학춤	금	2시~4시	30명(6개월)
국악기반	태평소,단소,대금 (영산회상,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6개월)

◆개 강 일 : 불기 2553년 기축년 양력 2월 3일 오후 2시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기숙승방 운영(선착순 우선):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s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 이수자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생명 나눔 실천 기금 및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 051)327-5095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인의 밤 KBS (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 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직접)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 30,000원)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聃鬺學會 會長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얻을 바가 없습니다

☞21면에서 계속

서,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그게 정말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주인공에다 '내가 당신이 그런 거 알았어. 당신이 나 공부시키려고 이랬지?' 하고선 당신 주인공에다가 그냥 깊숙이 '아! 당신이 나 공부시키려고 그런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처음에 머리 아팠을 때 그랬던 것처럼 계속 물러서지 말고 공부해 보세요. 아시겠죠?

대상을 정해 놓고 기도해도 되는지

문 없는 마음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없는 마음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어느 대상을 정해 놓고 기도를 한다면 더 집중도 되고 성취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답 우리는 누구나 에너지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관세음보살이니 문수보살이니 모두 각자 이렇게 추구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그 에너지통, 삼각형으로 된 에너지통을 내가 확신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들이고 낼 줄 안다면 이게 스스로서 둥그러진단 말입니다, 전체가. 소공에서 대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 이러는 것도 그 삼각형의 그 에너지통에 귀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 자체와 더불어 내 마음, 이 분별하는 마음과 이 육신과 삼합이 한데 합쳐진 삼각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 삼각형의 에너지통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바깥에서 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겁니다. 안에다가 코드를 꽂고 안에서 구원을 받게끔 하고, 감사함도 거기다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통이 자기 나오기 이전 참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구원을 받게 해야 구원이 받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받아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저께 먹은 컵의 물이 부처님이라면, 어저께 먹은 컵의 물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그것이 바탕이 됐다 이겁니다. 오늘의 물이 또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뒷생각이 끊어져야 될 거 아니오? 왜? 이 컵의 물은 바로 앞의 물이 돼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깐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왔다 이겁니다. 이걸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이 다시 바뀌어져서 여기 또 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깐 이거는 앞의 물은 방치해 두고 자꾸 자기가 먹고 돌아선 이 뒤의 물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앞의 물이 생기질 않고 받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발을 하는 데는 어디까지나 내가 현시점에서 그 모두를 바탕으로 삼아서, 주춧돌로 삼고 길잡이로 삼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그 길잡이가 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계발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저께 계산한 거를 오늘에 가서 계산을 한다면 되느냐? 어저께 계산한 건 계산한 것대로 어저께 계산한 거지 오늘 계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산을 하는 거는 오늘의 나로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전자에 계산한 거와 미래의 계산이 여기 오늘의 계산으로 합쳐지는 것이 삼각형이다. 그러면 삼각형이 법이라면 둥근 것은 대공의 열반의 나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반이란 거는 뭘 열반이라고 하나? 나툼을 열반이라고 한다. 없어서 무(無)자로 돌린 게 아니다.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하니깐 이건 평등 공(空)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꽉 찬 공이다. 그래서 '무' 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 무 하나에서 수만 가지가 거기서 소생되는 겁니다. 나고 죽고 나고, 생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공을 모르고는 대답 한마디 할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되기 전까지 전자에 싹이 살았죠? 그런데 씨가 거기서 여물어서 껍데기는 없어지고 씨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 씨를 또 되심어서 여기 지금 싹이 나와 있는데 왜 전자의 싹을 찾느냐 이거예요. 싹이 나와 있는데, 그 씨의 싹이 여기 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전자의 이 씨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싹이. 뿌리가 박혀 있고. 아, 그런데 이걸 전자의 씨를 찾으니, 여기 벌써 있는데…. 그러니깐 그게 모순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씨를 찾지 말라. 전자의 씨는 이미 심어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이 씨가 여기 와서 또 싹이 된 겁니다. 뭐든지 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인연에 따라서 한데 합쳐져서 하나로 뭉치면서 이것이 모든 게 나투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4시간 고정적으로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 사람이. 그럴 때 한 사람이 고정적인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체에서 24시간 살아 보면서 그걸 이해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공의 이치가 모두 나툼이지 하나도, 물질적인 이 색채는 보지 말고 이 근본적인 참나를 봤을 때 이 일체 만물의 색채는 스스로서 본래 죽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깐 이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쓸모가 있으면서도 쓸모가 없고 쓸모가 없으면서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뭘 내가 강조하느냐 하면 좌선한다고 해서, 이 육신이 달구지라면 달구지를 쳐서 달구지를 망가뜨리지 마라. 왜냐? 달구지는 나중에 써먹을 건데, 공부가 다 됐다면 써먹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공부할 때 그 써먹기도 전에 달구지를 쳐 가지고 달구지를 다 망가뜨리고 소를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고삐를 잡고 선 소를 다스리면서 갈 때는 가고 설 때는 서고, 방문을 열면 방문을 닫고, 닫았으면 열고 나갈 줄 알고 이러면서 소고삐를 잡고 소를 쳐야 될 텐데 달구지를 치고 있어요.

즉, 몸을 망가뜨린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공부를 다 하고 보면 벌써 달구지는 다 망가졌으니 이걸 어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달구지를 치지 마십시오. 소는 자기 나오기 이전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의 아버지나 조상들이 아무리 잘했다 하고 아무리 도를 통해서 깨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씨앗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나와 더불어 같이 지금 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놓고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간다 온다도 없이 놓고 돌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업과 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들고 나고 들고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자기 내면에 놔 버리게 되는데 왜 그렇게 놓질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믿어야 놔지지, 믿지 않으면 놔지질 않아요.

생각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이성계가 아무 뜻도 없이 떡을 파는 노인네 앞에 가서, 떡그릇에 가서 그냥 엎드러진 거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해 보세요.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내가 모두를 얻으려면, 이 우주 천하의 모든 것을 얻으려면 말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얻을 바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가 찌꺼기가 남아서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가질 게 없다면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이 주먹 안에 꼭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땅 놓으십시오. 몽땅 맡기고 사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들이고 내고 살고 있는 자체 자기까지 더불어 같이 이끌어 가는 주인공 자체가, 운전수가 차는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다면 어느 땐가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빛이 나고 스스로 참으로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져서 하늘을 보고 한 번 울고 땅을 치고 한 번 울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삶의 그 뜻을 알게 될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면

문 순간순간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도 어느덧 저도 모르게 나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근본과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일상생활에 우리가 본래는 놓고 가는 건전자의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뭐를 해 달라고 바깥의 산소에 가서 빌어 봤던들 그건 아버지가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내면으로 귀의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팔자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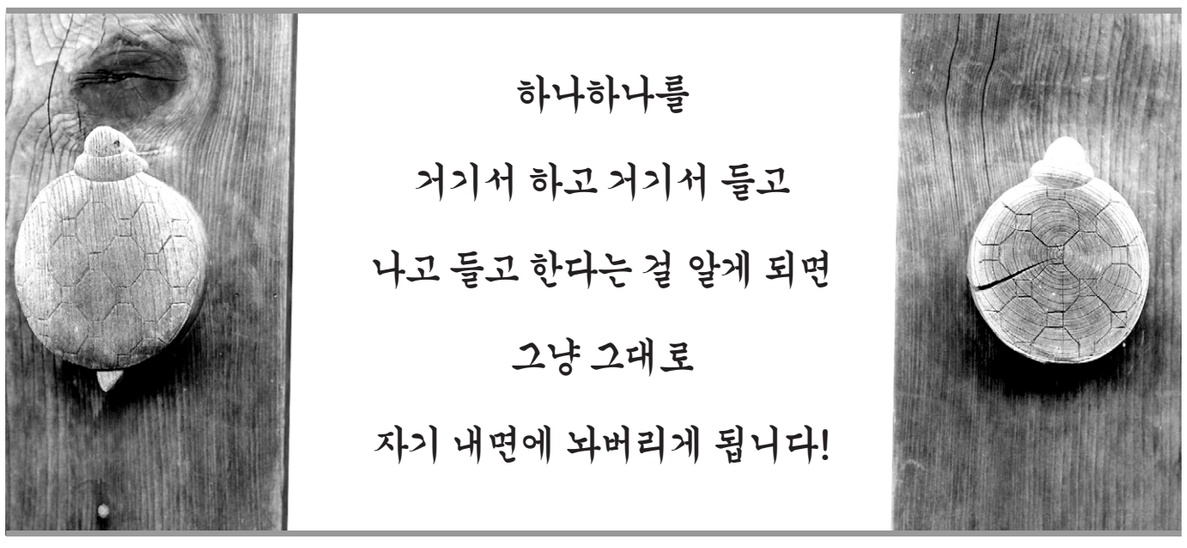
문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사는 게 무척 힘듭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업이나 팔자운명이 있다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지요? 좀더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답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업이 많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으로 업이니, 팔자운명이니 이런 언어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냥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수 밖에 없지.' 하고 놓고 또, 모든 게 좋게 되면 '아, 감사하구나.' 하고 또 놓고 말입니다. 이 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든 게 과거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물질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몸에, 내 가정에 다가오니까 그것을 녹이면 일차적으로 내 마음을, 내 참나를 발견하는 데도 이익이고 내 자식들을 이끄는 데도 이익이고 부부지간에도 이익입니다. 모든 게 '나'라는 자가발전소에서 불 하나를 켜면 아들이다 딸이다, 부부다 부모 형제다 하는 데 가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여기만 누르면, 발전소에서 스위치만 넣으면 다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다 녹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 창살 없는 감옥에다 내 몸을 옴쳐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걸 탁 털어 버리세요.

마음은 저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우주도 갈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도 내 집에도 갈 수 있고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내 가정과 내 몸과 내 자식을 튼튼하게 하고 부모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나라는 아집 내지 말고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걸 주인공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그러한 발전적인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자유인이 될 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여함을 말합니다.



무선마이크 무료보시 합니다!
2008년 12월 ~ 2009년 1월 中 앰프, 스피커 설치 사찰에 한함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법회를…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
괘불탱화 조성 보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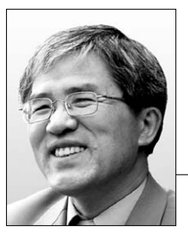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 괘불 7자 X 4자반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두리아기획에서는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하실 수 있도록 소형 괘불탱화를 조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대덕 큰스님들께서는 괘불탱화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시면 부처님의 무한공덕은 물론 신도님들의 신심을 더욱 깊게 하여 불교 포교에도 한량없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서 특별 할인혜택을 드리오니 동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장엄미 가득한 괘불탱화를 조성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제작을 원하시면 크기 · 모양 등 원하는 대로 다양한 괘불을 제작해 드립니다.

※ 한 작품당 시일이 15~2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특괘불(大 · 中 · 小) 제작 조성해 드립니다.

취급품목 단청, 탱화, 개금, 불상 및 건축, 시멘트법당, 천불, 오천불, 만불 등 각종 불사 전문

두리아기획 상담전화 : (02)714-7253 / 010-9939-5412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이웃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작은 설렘으로 잠시 들떠있는데, 세상을 또 다시 강타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해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지상군도 투입할 태세라는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이번 공격은 총선을 앞둔 이스라엘 연립여당이 강경파 야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집권을 이어가려는 정치적 배경이 강하다"고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런 분석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국내 문제 때문에 엉뚱한 약자를 공격하는 일이 흔한데, 이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항상 가장 확실한 사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만약 순전히 국내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번 가자지구 공격이 이루어졌다면,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고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니 한편으로는 다행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무차별 공격에 정치 · 군사적 배경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 아마 영원히 –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민족과 팔레스타인민족은 똑같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셈족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위로 멀리 올라가면 같은 조상 아래서 퍼져 나온 두 민족이 이처럼 극한 대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민족은 자신들이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종족, 선민(選民)'이라고 믿어왔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택과 약속의 증거가 이른바 <구약성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예리코 전투에 나서서 "남녀노소, 소와 양 등 도시의 모든 것을 칼로 철저히 몰살"시킬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밀고 나갔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또한 같은 책 '신명기'에서는 "너희 주 하느님이 유산으로 준 이 민족들의 도시에서는 숨 쉬는 것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 그러니 가나안 … 족은 너희 주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한다"고 하며, 이스라엘 민족과 공존할 수 없고 말살시켜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까지 한다.

<구약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선(善)하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땅에서 다른 종족들은 함께 살 수 없다. 혹시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민족(이교도)이 있다면 몰살시켜도 된다"는 확신이 있다.

이들은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나오는 '사람'은 '동료 유대인'을 말할 뿐이라고 믿는다. 12세기의 유명한 랍비인 모세스 마이모니데스(Moses Maimonides)는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인 한 명을 죽이면, 그는 이 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성서에 '살인하지 말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목격자들 앞에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다면, 그는 칼로 처형된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교도를 죽인다면 처형되지 않는다."

<구약성서> 가르침과 그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따른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량 살상하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고, 이 확신에 따라 앞으로도 이런 공격의 악순환이 그치지 않으리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아도, 이와 같은 '잘못된 확신'과 별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현재의 세대가 물러나고 새로운 젊은 세대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대외정책이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절망적인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민족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세계 전역을 유랑하며 핍박을 받아 왔다.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예수를 배반한 민족'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나쁜 처우를 받아왔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걸핏하면 격리 수용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겪은 그들이 이제는 과거 자신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히틀러 독일보다도 더욱 철저한 보복과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하지만 증오심과 폭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저들이 보여주는 폭력과 증오심의 과보는 자기 후손들에게 무거운 압박이 되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의 힘을 키워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⑨⑦ 새해에는 마음을 바꾸고 싶다

새해의 계획들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정말 자신이 바라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때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마음의 입력이 있다면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한 비구스님이 주신 '새해에 바꾸고 싶은 마음'을 나누어본다.

내 몸의 주인은 내 마음

어떤 일을 할 때 피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일하다가 몸이 피곤해지면 곧 그 일이 하기 싫어진다. 생각해 보니 나보다 나이많거나 약한 사람도 잘 해내고 있었다. 결국 다른 사람보다 빨리 피곤을 느끼는 것은 몸 때문이 아니고 마음 때문이었다. 내 몸의 진짜 주인인 마음을 모르고 몸만 힘들다고 했다. 마음이 주인이 되면 얼마든지 일을 해낼 것이다.

말을 현명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나는 말을 잘 하는 것이 커다란 능력이라고 생각했었다. 남들과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주도권을 잡거나 말을 많이 했고 내 판단 하에 상대에게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는 상대방을 제압했다고 자부하곤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 위주로 말하는 것은 결국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중엔 나도 그 말의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말을 잘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 새해에는 말을 잘하기보다 깊이 생각하고 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모든 이들을 부처님으로 대해야

예전엔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서 사람들과 같이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 타종교인의 적대적인 시선과 언행을 감수해야 하고, 취객들의 끝없는 신세타령도 들어야 하고, 노숙자들의 온정을 바라는 손길에 응해야 한다. 처음에는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맞대응을 했고, 취객은 먼저 피해버리고, 노숙자들의 요구는 무시해버렸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저 수행자답게 그 모두를 부처님으로 대했으면 자연스러웠을 텐데, 잘 하지 못했다. 알면서도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수행이야말로 완성이라는 말을 믿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새해에는 사람 따라 분별하지 않고 모두 부처님으로 대해야겠다.

나 먼저 행하면 세상은 따라서 바뀌어

거대한 조직 사회 속에서 일개 개인일수밖에 없는 나를 생각하면 가끔 한없는 무력감에 빠지곤 한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친들 이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이 해결될 것인가? 어떤 때는 다 때려치우고 조용히 산중에서 머슴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는 성도하시기 이전의 수행자 싯다르타를 생각하면서 '아직 한참 수행도 모자란 사람이 망상을 하는구나'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나는 수행자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정진한다면 세상은 내 서원대로 바뀌어질 것이다. 정작 부족한 것은 큰 서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행이다. 그리고 때로 약해지는 마음 탓이다. 이제 나는 결심한다. 내가 먼저 바뀌자. 그러면 세상도 바뀌어질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100회 회향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가 100회로 회향하게 됐습니다. 일 년 반이 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외국과 지방에서까지 격려해주신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마지막 100번째는 독자여러분의 말씀으로 회향하기로 했습니다. 읽으신 소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동참하시어 소중한 회향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on@hope.korea.com(황수경), 서울 마포우체국사서함 111호 (우121-041)

社說

강도 살리고 문화재도 살려야

구랍 29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첫 삽을 떴다. 대운하를 위한 단계별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경북 안동과 전북 나주에서 시작된 이 역사는 자연파괴와 인근 문화재에 대한 훼손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해 문화재청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매장 문화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사업추진 지연을 극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복안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프로젝트의 계획안에 문화재분포 상황을 반영시킨다는 것과 문화재 전문가의 파견, 자체 태스크포스 가동 등이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는 문화재 등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문화재 주무부서의 입장으로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가동이 정부의 상당한 관심 속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자칫하면 문화재관련 업무들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아예 무시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문화재청의 업무보고도 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린다.

문화재는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라면 오히려 주변의 생태환경 조사와 문화재 처리를 위한 사전 조사와 방침이 수립된 뒤에 공사를 시작했어야 옳았다. 시작부터 거꾸로 되어버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생태 문화재 보호 및 보존의 관계가 왠지 개운치 않다.

새싹포교의 원칙적인 조건

새싹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다종교사회에서 공격적인 선교마케팅을 하고 있는 타종교에 비해 보폭이 좁은 불교는 차세대 포교에 매우 뒤쳐져 있다. 이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일생 심혈을 기울인 스님들도 없지는 않다. 문제는 개인적인 원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차세대 포교는 개인의 원력을 넘어선 곳에서 보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걸어두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200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어린이 포교를 위한 기틀다지기에 나서 온 것도 '만시지탄' 속에서의 분발이었다. 포교원이 추진한 일련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 마지막 해를 맞아 할 일이 더욱 많은 것 같다.

무엇보다 어린이 포교는 종단적 원력과 스님들의 개인적인 원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과거 원력을 가진 스님들이 외롭게 활약할 때를 생각하면 종단의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 수 있다. 반대로 종단의 의지가 하늘을 찔러도 사찰의 호응이 없으면 어린이 포교는 불가능하다. 어린이 포교의 절대조건은 종단과 사찰의 의기투합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필요충분조건들을 먼저 체크하고 종책을 입안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의 어린이 포교 사업은 올 해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1000일 기도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대집경』에 이르시기를 말세 중생들은 여러 부처님을 염하면 마음이 산란하여 定(정)에 들기 어려우니 오로지 서방정토 **아미타불**만을 念(염)하라 하시었기 때문에…,

금번 팔공산 지묘동 **대원사**에서는 1000일간 **아미타불** 기도를 봉행하여 다겁생래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동참하는 제자 모두가 사바세계의 고통을 영원히 여의고, 서방정토 구품연대에 낳아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무생법인(無生法印)을 증득하여 성불을 이루고자 발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부대중은 이러한 수승한 법연의 자리에 수희 동참하시어 큰 공덕인연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입　　재 : 불기 2553(2009)년 1월 19일(음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불기 2555(2011)년 11월　2일(음 10월 07일) 수요일 오전 10시
◈ 계좌번호 : 농협 150090-51-038650 / 예금주 : 대원사
◈ 문의 및 접수처 : 대원사 종무소　☎ 053) 981-8844~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지묘동 **대원사** 주지 **혜룡** 두손모음

생활불교 법구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8년 11월 28일 부터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해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당되는 분은 악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 세로4.5cm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 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 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 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 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 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재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천 안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무사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사업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 울
한경업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장효근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충 북
정경택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충 북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무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사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설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사원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무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무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사원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설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사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사업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무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사업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사업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영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사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사원	전 북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준공무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졸	사업	천 북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졸	회사원	서 울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농업	전 북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영업	서 울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부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사원	충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육직	울 울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충 북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무원	부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사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사원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사원	울 주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사원	충 서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무원	울 북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무원	충 북
김왕회	1971년생	162	고 졸	사원	충 북
고선식	1969년생	170	고 졸	사원	충 북
강석일	1971년생	170	고 졸	사원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산 구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울 대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리사	서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경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약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경 부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대 전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사	충 서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융	인 천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대 전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사원	대 전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인	충 북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청 주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주 구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동산	대 구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무원	청 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과점	청 주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서 울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사원	서 울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예가	경기도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 울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서 울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사원	구 울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울 안
박경하	1952년생	177	대 졸	무역사	울 안
전준석	1957년생	167	고 졸	회 사	서 울
박천호	1975년생	168	대 졸	회사원	북 남
김 천	1974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 서
김병준	1973년생	170	대 졸	자영업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오영일	195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강태욱	1975년생	169	고 졸	자영업	서 울
김용진	1968년생	160	대 졸	자영업	인 천
이경솔	1963년생	163	고 졸	사업	경기도
심명길	1971년생	170	대 졸	영사업	경기도
이연재	1974년생	169	대 졸	사	서 울
배덕열	1976년생	168	대 졸	사업	경기도
배복열	1967년생	165	고 졸	사업	경기도
최병덕	1968년생	170	고 졸	사업	경기도
장보배	1973년생	176	고 졸	사업	아산시
유돈석	1971년생	167	고 졸	사	서 울
유정환	1974년생	162	고 졸	사원	대 전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무	서 울
조경정	1945년생	171	대졸자	영업	경기도
한 균	1963년생	174	고 졸	영사업	서 울
소무영	1961년생	175	전문대	원원	경기도
지상훈	1971년생	180	고 졸	사원	서 울
이종필	1974년생	174	고 졸	행사사	충 북
남상복	1967년생	175	전문대	회원원	김해시
최치원	1976년생	165	대학원	연구사	대 전
김성진	1979년생	171	고 졸	회원원	울산시
백선기	1976년생	167	대학원	회사	서 울
김창일	1973년생	180	대 졸	교	경 북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